

조용히 쉬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닌 후 부부  
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신데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거역하는 죄 중의 죄입니다. 마귀가 이 자리에 스도과 고과  
를 남기는 방목로 불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말씀  
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주  
를 대항하여 주 영을 사탄의 영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아멘.

볼만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  
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말액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  
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우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  
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1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0호 2013년 7월 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DOMA 위헌” 진보-보수 전쟁 본격 시작!

### 미 언론, 결혼보호법, 캘리포니아주민발의안8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예고



이번 연방대법의 “DOMA 위헌”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13개 주로 늘어났다.

미 언론은 지난 26일 일제히 “연방 대법원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위헌심리에서 대법관 5명이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로써 동성결혼부부에게 세금, 보건, 주택 등의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조항(프로포지션8)과 관련해서도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일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 주에서는 83세 여성 에디스 윈저가 자신의 동성부인 테아 스파이어가 사망한 뒤 남긴 유산에 연방정부가 상속세 36만3000달러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연방정부는 동성부부를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상속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고, 윈저의 소송에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먼저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처음이며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판결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판결은 미국의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동등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환영했다. 역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에드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연설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머나먼 여정이었다”며 “사랑이 무시를 누르고, 평등이 차별을 꺾고 승리를 거둬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곧바로 이번 판결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찬반 논쟁으로 양분되고 있다.

먼저 진보 진영의 선두 주자, 뉴욕 타임스는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해도, 이번 판결을 동등권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결혼보호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 인정함으로써 결혼한 동성커플이 약 1,000가지의 연방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한 차별이라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동성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

민발의안은 2010년 연방지방법원의 위헌판결을 지지함으로써 합법화 했다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을 캘리포니아 주에 한해 판결함으로써 전국적인 확대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연방대법원은 아마 미국이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을 때 생길 분열을 과대평가했거나 동성결혼합법화를 늦춰서 올 수 있는 대가를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뉴욕타임스는 주정부마다 새로운 도전에 처할 판결을 해서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민권평등으로 가는 길은 났다고 밝혔다.

반면에 보수신문 워싱턴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판결은 ‘최고의 실수’(A supreme bungle)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번 판결이 전통적 결혼을 무너뜨리고 약 7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데 연방대법관의 5명으로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헌법의 원칙보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진보적인 정치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의 민주당 정치인의 계산된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위안할 것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이 위헌이라는 것을 모든 주에 적용하지 않으므로써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아니라고 전했다. 결국 미국 사회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법원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국의 윤리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을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승리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현 오바마 대통령이다. 판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누군가에

게 전화를 걸었다. 뉴욕에 거주하는 에디스 윈저라는 여성 동성애자였다.

올해 83세의 윈저는 바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그녀는 42년 간 동거했던 자신의 파트너인 한 레즈비언이 2009년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았다. 하지만 국제세정(IRS)은 결혼보호법에 따라 윈저를 사망인의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산에 대한 세금으로 363,050달러를 부과했다.

윈저는 이성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면으로 계속)

## “은혜로 인한 기쁨 누린다”

### 스몰그룹닷컴, 소그룹 필요성과 기능에 관한 존 파이퍼 목사 제안 소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리며 인상을 쓴다. 또 율법주의자라 부르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옹호하고 억누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정하셨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돌보며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목양적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에 더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 소그룹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1) 서로를 격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격려하도록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를 받도록 계획하셨다.

2) 서로 선과 사랑을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속에서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는 사랑과 선한 일이 소그룹 안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선한 일을 베풀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3) 함께 모인다.

우리는 대그룹으로 모이거나 전 공동체적 모임을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개개인이 서로를 섬기는 사역의 패턴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만나기를 즐겨워하며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누구든지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소그룹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성도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도모하고 모두가 섬김을 받고 또 섬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이고 또 모일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우리의 소그룹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기도한다.



2면

무신론자들 “호텔 비치 성경 불법” 주장



3면

영국 기독교 감소 추세 심각!



7면

제2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연인 김만형 목사(친구들교회)



16면

은혜의 땅 에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경옥 전도사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3년 본 총회는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증복음과 삼중 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 목회자 육성 및 선교와 상호 협력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 (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 (B.A), 신학대학원 (M.A, M.Div) 이수자 및 졸업 (예정)자
- 4) 목사 안수  
①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과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 3)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 (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 (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 (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 (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와 면접 일정

- 1) 제출기간 : 2013년 9월 6일까지
- 2) 고시 및 면접 : 2013년 9월 16일
- 3) 고시장소 : 하워드존슨호텔 (플러톤)

### 5. 기타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 가입 가능함 (총재 조용기 목사)
- 봉사 및 사회 참여 (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 활동)
-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 한국-미국

###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8 / 최명상 목사 (323)317-3749





# 시론

## 통 크게 양보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최근 어떤 교단총회에서 목사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분열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독교회 전체가 비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격추당하고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약한 교인들은 교회 자체에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교회도 일종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만약 한쪽 편이 약한 죄로 문제를 심각하게 어렵게 하거나 이단의 세력이 파고들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힘겹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진리와 정의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진리의 싸움이기보다는 정서적, 관계적인 갈등으로 생긴다.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다. 예루살렘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등등 기라성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던 이런 초대교회들의 공통점은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로의 성향 때문에 어떤 파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런 그룹끼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파벌은 용납하는 것이 더 나은 면도 있다. 사람은 소속감을 느낄 때 행복하고 자기 나름의 역할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관계를 위해서든, 사역을 위해서든 소그룹을 형성하여 소속감을 심어주고 소그룹에 충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면이 많다. 다만 파벌이 지나치면 "파벌주의(factionalism)"가 된다. 파벌주의란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파괴시키는 독소다. 파벌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파벌만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치 않고 자기 계파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함께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로 물고 뜯다가 함께 망한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충만하고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던 예루살렘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 구제라는 좋은 사역을 놓고 서로 시합이 들어갈등관계에 빠져 들어갔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 사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는가? 일하다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쪽 사람들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속하지 않은 쪽의 사람들의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관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보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보다도 생긴 문제를 성숙하게 풀면 성숙한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다. 무엇보다 먼저 사도들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섰다는 것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들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보다도 자신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또한 표피적인 문제만을 보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 데서 그들이 탁월한 지도자됨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지도자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 어떤 갈등에서든지 절대 선한 편이나 절대 악한 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책임을 묻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다가 더 큰 싸움이 나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옳은데 상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책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루살렘교회의 성숙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한 이후에 당시 주류에 해당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계요 비주류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양보한 사실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뽑는데 모두가 헬라파였다. 스테반을 비롯한 7명의 리더들이 모두 헬라파라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였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숫자가 훨씬 많은 히브리파가 밀어주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다. 통 크게 양보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로 인해 교회의 위기는 해결되었고 교회는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였다. 누군가 먼저 통 크게 양보해야 다 같이 산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무신론자들 "호텔 비치 성경 불법" 주장

## 이코노미스트, '미 무신론자협회의 무신론자 저서 제공' 보도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호텔에 가면 방에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인 기드온(Gideons)이 기증한 성경이 비치돼 있다. 기드온은 호텔 뿐만 아니라 병원과 감옥 그리고 다른 장소에도 성경을 기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장소에 비치돼있는 성경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오히려 무신론자들의 책들을 제공하겠다는 무신론자들의 또 다른 도발이 있음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보도했다(Reading Dawkins in a cabin: Atheists complain about free Bibles in the wilderness).

조지아 주의 아마카롤라 폭포(Amicola Falls) 주립 공원의 한 별장에 방문한 버크너(Ed Buckner)는 별장에 9권의 성경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읽을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까? 별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미국의 무신론자 단체인 미국무신론자협회(American Atheists)의 전 회장인 버크너는 조지아 주의 주립 공원을 관할하는 공무원에게 주립 공원의 별장에 성경이 비치돼있는 것은 헌법에 맞



서를 기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미국 무신론자협회는 동 협회의 창시자인 오헤어(Madalyn Murray O'Hair)와 이슬람 비판가인 이븐 와라크(Ibn Warraq)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와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같은 저명한 무신론자들의 책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과 적용에 대해 논쟁해왔다. 최근에

## 조지아 주정부 무신론주의자들 제안한 도서기증 검토 헌법이 명시한 종교정치 분리원칙과 적용에 대해 논쟁

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지아 주의 딜(Nathan Deal) 주지사는 비치된 성경은 주정부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증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딜 주지사는 원하는 단체는 책이나 문

의 한 부분이라는 판결을 내려 기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 하원 상원은 오랫동안 원목(chaplains)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금에서 그들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법원에서는 이와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 위배되지만 텍사스 주의회 의사당 건물 외부에 있는 대형 십계명 조각물은 괜찮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지아 주정부는 무신론주의자들이 제안한 도서기증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가를 내 자연을 즐기려고 온 사람들이 '만들어진

## "DOMA 위헌" 진보-보수 전쟁 본격 시작

(1면에서 계속)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 때문에 이성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감세 등의 혜택을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원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는 "누구세요? 오! 버락 오바마?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커밍아웃(Coming-out: 동성결혼 공개지시)이 이 나라에 큰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결혼보호법 폐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때부터 동성애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보호법 폐지를 정강으로 채택했고 법무부는 연방법원 결혼보호법이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취임사에서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그가 처음이다. (3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b>· 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수시 입학 가능
-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 영국 기독교 감소 추세 심각!

## 텔레그래프, 크리스천 고령화로 '기독교 괴멸 가능성' 경고



감리교와 성공회를 탄생시킨 영국의 기독교 인구감소 추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으로라도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한 젊은 층 인구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2011년에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중 종교 인구를 성별, 인종 배경, 출생지 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인구 중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20만 명.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해 여전히 영국에서 가장 큰 종교의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만 2001년 조사 때보다 신자 수가 10%, 410만 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국 총인구는 370만 명 증가(총 5610만)했지만 기독교 인

25%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영국 기독교의 고령화 현상이 확인됐다. 반면에 무슬림은 270만 명(5%), 종교가 없는 인구는 1410만(25%)으로 집계,

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현재 영국 기독교 인구에는 폴란드 출신 가톨릭 교인과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이민 온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120만 명이 포함된 것이어서, 영국 태생 그리스도인은 2001년에 비해 실제로는 530만 명, 비율로는 15%나 줄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무슬림 인구는 75%나 급증했다. 영국 무슬림 인구도 이슬람 신앙을 가진 외국 태생 이민자 60만 명이 이상이 보태준 수치다.

한편 영국인 640만 명은 어떤 신앙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젊은 층일수록 어떤 종교든 종교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응답

## 10년전 비해 10% 감소...10년 내 소수종교 전략가능성 35-39세 남성그룹 66%에서 47%로 하락

구는 줄어든 것이다.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60세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지만 30-39세와 5-14세 연령 그룹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특히 35-39세 남성그룹에서는 47%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했다. 2001년도 조사에서는 이 그룹의 66%가 그리스도인이었다. 반면 60-65세 기독교 인구는 증가했고, 전체 그리스도인의

2011년 조사 때보다 각각 120만 명, 640만 명 증가했다. 특히 25세 미만 영국인 10명 중 1명은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은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하면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영국에서 기독교가 괴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또 이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영국에서 기독교는 사상 처음으로 소수 종교

이 많았다. 국교 반대 운동가들은 인구조사 결과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영국성공회를 탈국교화하는 "임계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성공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핵심이 견고하다고 응수했다.

### 기/자/단/상

## 목회자 배우자의 호칭문제

### 당신의 배우자를 아내(남편)로 대하십시오? 사모(목사)로 대하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맞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문제일 것이다. 보통 연상연하 커플로 지내다 부부가 되었기에 나타나는 어색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에 한동안 부르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연애커플은 커플들은 상대를 부를 때 '오빠' 혹은 '누나'로 부르다 가정을 이루게 된다. 동거일 경우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 가정을 이루게 된다. 아내와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에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 기간은 어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며 그것의 마침표는 서로에게 맞는 호칭을 자유

롭게 사용하게 될 때이다. 이러한 기간 동안 눈총을 받기도 하고 야단도 맞기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서이다. 더 이상 오빠도 여동생도, 누나도 남동생도 동기도 아닌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오빠 혹은 누나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목회자들과 만남을 가질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배우자를 부를 때 나타나는 대부분 그들이 배우자를 부를 때의 호칭은 '여보', '당신', '집사람', '아이들 엄마'도 아닌 '사모'라는 호칭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들 역시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은 '목사님', '전도사님'이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부터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던 필자로서는 미국에서 목회자와 가족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부를 때 목사님과 사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어색함을 뛰어넘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건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신 것이지 목사님과 사모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아니다. 목사와 사모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 당사자간 서로를 부를 때의 호칭으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아내가 배우자인 남편을 목사 혹은 전도사라고 부를 때는 예배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제3자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 인지를 설명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 된 목회자 역시 자신의 아내를 사모로 소개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모라는 호칭은 자제해야 한다.

(박준호 기자)

## “근본적 사회도덕 이슈는 법원판결 아닌 정치공방 통한 합의가 최선책”

### 미 언론, 결혼보호법, 캘리포니아주민발의안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예고

(2면에서 계속)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에는 프로농구(NBA) 선수 제이슨 콜린스가 현역 미국 프로운동선수 중 처음으로 자신이 게이(gay)라고 밝히자 그에게 전화해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격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적극적 행보는 미국 사회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곳은 12개 주와 워싱턴DC로 이중 10곳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이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번 판례로 '결혼보호법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주들을 상대로 펼 전망이라고 미 언

론은 예측한다. 곧바로 그의 정치 조직(Organizing for Action)은 연방대법원의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직후 "13개주를 접수했으니 37개가 남았다"고 말하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37개주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도록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 결혼보호법의 위헌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이슈는 연방이 아니라 각 주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가 연방법을 통해 모든 주에 획일적으로 결혼의 정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진행될 진보와 보수 간의 전쟁터이다.

현재 미국 내 30개주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는 정의를 주헌법의 조항으로 명시해 주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헌법 개정은 주민투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이 30개주를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주부터 주민투표를 발의해 헌법 개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 ‘결혼 정의’ 각 주마다 해석해야 하는 상황 오바마 조직 나머지 37개주 향해 전력질주

론은 예측한다.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약화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무리한 법 해석이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주지사가 자신의 생각에 호응할 만한 판사를 선정해서 의미 있는 형소 조차 거부해버릴 공산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욕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13개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진영으로서 커다란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결혼한 동성부부가 앨라배마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연방정부는 어떤 주의 법을 인정해야 할까? 머지않아 하급법원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줄줄이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동성결혼논쟁은 앞으로도 여러 주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의견에 귀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결혼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 도덕적인 이슈는 법원판결이 아니라 정치공방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게 최선책이다!'

결론으로, 동성결혼논쟁은 앞으로도 여러 주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의견에 귀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결혼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 도덕적인 이슈는 법원판결이 아니라 정치공방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게 최선책이다!'

## 2013 Summer Conducting Seminar

2013년 여름학기에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현재 California에서 활동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활동을 계획하시는 교회 지휘자와 Music Director를 위한 Conducting Seminar를 개최합니다. Azusa Pacific University 음악대학 지휘 및 성악과 교수님인 Dr. Donavon Gray, Dr. John Sutton, Dr. Patricia Edwards 그리고 Dr. Youn Ju (Grace) Kim과 함께 하는 과정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법, 발성법, 성악과 합창 기법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음악에 필요한 실질적이며 전반적인 부분이 다루어 집니다.

일시: Saturday, July 27th & August 3rd, 2013 (10:00 AM to 4:30 PM)

장소: Azusa Pacific University, School of Music 901 East Alost Avenue, Azusa, CA 91702

학비 (Tuition Fee): \$500.00  
등록처: School of Music, Azusa Pacific University  
901 East Alost Avenue, Azusa, CA 91702  
-우편 등록 가능

Account Payable to (Check 사용시): Azusa Pacific University  
-(Credit Card 사용 가능)

보내실곳:  
Attention to: Dr. Donavon Gray & Dr. Youn Ju (Grace) Kim  
Azusa Pacific University  
School of Music  
901 E. Alost Avenue, PO Box 7000  
Azusa, CA 91702-7000

Contact Information  
Dr. Youn Ju (Grace) Kim  
TEL. (480)316-0012  
Email: yjkim@apu.edu



##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중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해천 목사로서 강의의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전도는 삶이다

2003년 9월28일 육상계의 숙원 이었던 2시간 5분 벽을 깨며 마라톤에서 우승한 Paul Tergat은 아프

리카 케냐 사람입니다. 2시간 3분 38초로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케냐의 Pat-

rick Makau입니다. 2012년에 세계 육상연맹(IAAF)이 발표한 세계 남자 마라톤 Top 10 기록 보유자 중에도 7명이 케냐 사람이고 남은 3명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세계 남자 마라톤 랭킹 100위 중에 케냐 사람이 68명에 이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모든 것이 낙후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20여 년간 세계 마라톤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케냐 육상 스타의 75%를 배출하는 칼렌트 족을 살펴보면, 그들은 해발 2000m의 산속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으로 살기 위하여 늘 뛰어

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풀 타겟은 가난한 시골에서 17남매의 하나로 태어나 날마다 왕복 10 km를 뛰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주는 한 끼 점심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살기 위해서 늘 뛰어다녔습니다. 뛰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치워하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취미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삶의 한 부분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에서 아무리 스포츠를 과학화하고 엄청난 설비와 연구를 투입하여 키워내는 선수들이더라도 달

리기가 삶 자체인 사람들에게는 못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음악가나 선수들의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골 드러나는 공통점은 그것이 바이올린이나 골프건 피겨 스케이팅이건 그들 모두 그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나 인위적인 운동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나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성

경양기가 자연스러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해치워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은 힘들고 기쁨이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오이코스 관계전도에서 가르쳐주시는 핵심은 '전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정과 연구를 투입하여 아무리 훌륭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삶이 된 전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나 의무가 되어버린 전도는 기쁨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전도가 나의 삶이 되게 합시다.

푸 / 른 / 초 / 장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



앞에 나아와서 었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삶이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래 신앙이란 것은 '어려울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인데, 외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핑계가 삶의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삶대로 어려워지고, 삶의 어려움을 뒤엎어놓을 능력의 신앙심도 없다보니 결국은 영육 간에 실패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었드려 부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

들이 자신의 호불호를 따라서 자기 기준에 합당한 설교목사를 발달된 명의 기계 속에 세워두고 생명 같은 예배를 스스로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

교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겼던 분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지만 동일하게 저들이 구체적으로 확신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예배당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작은 물품하나 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하였으

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려는 것이 율법적이요 교회의 자 같은 얘기라고 비판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저 찾아가서 안기만 하면 어머니 품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람과 성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머니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쁨과 좋은 것을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시편 122장 6절 )

값싼 은혜, 값싼 신앙

신앙생활은 예배생활과 교회생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몇 분의 선호하는 스타 목사님들이 앱으로 연결되어있고, 특별히 좋아하는 목사님, 진정 목사님, 친구 목사님, 상담 목사님 등등.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저 원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정적인 동의만 있으면 큰 은혜 받았다고 쉽게 말합니다.

문명의 도움으로 인해 그런 은혜를 받을 수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불속에서 속옷차림으로 발가락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해도 쏟아지는 말씀 속에 스스로 참된 예배자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썩먹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더 강도

가 세어지지 않으면 감동이란 것은 나중에 맹목 송봉 맛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듣기는 많이 듣고 아는 것도 많은데 삶의 온전한 헌신과 변화가 없게 됩니다. 신앙은 변화이며 변화의 결론은 헌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흙에 떨어져 썩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라는 결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새벽과 주일날 들려지는 그 말씀 한 절 한절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고 교회 가는 일에 늦어지면 장로님이라 해도 그 벌을 면할 수 없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의 홍수임에도 열매를 보기 힘들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뚜렷한 헌신이 교회중심적인 삶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영으로만 어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영혼의 그릇인 몸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몸의 순종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것

모든 은혜의 출발점-교회

예전에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고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신과 가문이 귀한 복을 받았음을 봅니다.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집안, 결코 망한 예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더 새벽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많은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소수의 설교자와 찬양대 등 앞선 이들을 바라보는 보는 예배가 되어질 때, 결국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 예배는 설교자와 소수의 인도자를 보면서 평가하고, 설교를 중시한 예배를 잘하고 못함의 평가를 가져오는 엉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마치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기듯이 오늘날에는 많은 이

며,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피같은 물질도 아낌없이 그리고 마침내 삶 전부를 다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의 섬김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넉넉히 되갚아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전성시대-믿음의 명문가문들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중심으로 삶의 일들을 재편하십시오. 교회를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

다윗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인 본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안에는 평강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 하였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시편121편의 눈을 들어 산을 보라합니다. 나의 도움이 거거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오늘날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한 삶은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피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몸을 드러 예배합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한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분명한 신앙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온전히 붙들 때, 영육 간에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찬양대 지휘자 청빙**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섬기실 교역자들 아래과 같이 청빙합니다.

**1부 찬양대 지휘자(파트타임) 1명**

❖ 자격: 신학 중 혹은 신학을 마친 분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  
결혼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

**부지휘자(파트타임) 1명, 음악간사(해프타임) 1명**

❖ 제출 서류: 개인 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 2장 (전임 사역지의 담임 목사 혹은 행정 목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오디오와 인터뷰

❖ 마감일: 2013년 7월 1일

❖ 문의 및 제출처: 조성환 음악 목사 (714) 403- 8952 scho@hiu.edu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www.sarang.com e-mail: church@sarang.com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는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1972년 8월 6일에 설립된 교회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중남미 노회에 속되어 있으며 합동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이상 시무하시고 만 40세에서 50세 되신 분으로 청빙합니다.

**(1) 제출서류**

1.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2.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상)
3. 개인 및 가족 소개서
4. 목회 계획서
5. 학위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7. 최근 본인설교 2편(인터넷 동영상 1편)
8. 현재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분
9.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 주소
10.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이상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개별인터뷰

\*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통지후 인터뷰

**(3) 제출처**

1. Av. Castañares 1435 - Cp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2. E-mail: chungang.ar@gmail.com
3. Facebook.com/chungang.ar

Tel: 0054-11-4921-9395/0509/8860

**(4) 제출방법**

1. 우편이나 E-mail.
2. 기한: 주후 2013년 7월 31일까지 (2013년 7월 31일까지 발송인 찍힌것 유효)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미국 가정의 지축을 흔드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6월 26일 내려졌다. 두 가지 판결이 내려졌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해 대법원 판사 9명중 5대4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둘째로는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개정법 8조'(Proposition 8)에 대해서도 위헌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다시 동성결혼이 허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결론을 유보했다.

미국은 현재 뉴욕주, 워싱턴주, 뉴햄프셔주, 아이오와주, 델라웨어주, 미네소타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버몬트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캘리포니아가 사실

리아 대법관 주장처럼 "다수의견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복잡한 문제인데 판결로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동성애인권단체들의 전략은 성공하고 있다. 그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유리한 사법적인 판례를 만드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시도해왔다. 과거의 흑인인권이나 여성인권과 같이 사법부를 통한 전체 흐름을 바꾸려는 작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동성결혼은 우리에게 신약원리의 문제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역사적 진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했으며 2016년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동성결혼을 공개지지 선언했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보는 인기를 얻기 위한 표퓸리즘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1500여

있기는 하다. 언제든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의 결정이 미치는 세계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금년 초 필자가 본지에 실은 '세계적인 동성애 논쟁'처럼 동성애 합법화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는데 이어 프랑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다.

왜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가?

첫째로, 동성결혼 옹호자들의 세계적인 연대와 조직적인 준비이다. 그들은 긴 싸움을 각오하고 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려 한다. 둘째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지속적인 영향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동성애 관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미화하는 수많은 TV 영화 동영상 등이 생겨났다. 이제는 동성애가 더 이상 화제거리도 아니다. 진보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동성애를 동조 혹은 미화하는 견해가 신문 잡지나 책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셋째로, 클린턴 때부터 시작되어 오바마의 두 번 선거에서 두드러졌던 소위 게이(Gay)그룹의 정치 자금이나 정치영향력의 확대도 한

하신다(창2:18-25, 마19:3-6, 롬1:26-27, 엡5:22-33). 결혼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복음의 내용과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설명한다. 그래서 공격받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도 죄라고 증거한다(레18:22, 20:13; 딤후1:9-10; 고전6:9-10; 롬1:26-27).

우리의 시대는 정부나 사법부의 결정이 비성경적일 때 개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이슈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오직 시작일 뿐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타락과 배교와 불의를 보게 될 것이다. 동성결혼은 우리와는 직접 관계없다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성경말씀과 반대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나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지도자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외로운 싸움이다. 지속적인 힘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과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용기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즉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인데 사업상이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남몰래 술을 가끔씩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담배도 과거부터 피우며 잘 끊어지지 않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놀리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나 술 자체를 엄격히 금한 구절이 없는데 술 담배를 한다고 경건치 못한 것인지요?

-팔로스 버디스김 집사

**A:**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세 가지 나누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둘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유, 셋째, 아디아포라(adiaphora)에 관한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에 속한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비본질적인 것 또는 중립적인 것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로 흔히 선과 악에 속하지 않은 제 3의 것이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스토아학파에서 만든 말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선과 악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것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말씀을 규범으

### 신앙핵심문제는 아니지만 교회공동체 유익 우선

로 삼아서 소위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성경이 직접적으로 금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것들과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와 카드놀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 양심이 강한 자와 양심이 약한 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비록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가 시중에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면 삼가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나보다 크게 말하면 금지된 것이 아니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였다(고전10:23, 6:12). 이웃의 유익을 고려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행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허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술과 담배의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론되어온 문제입니다. 기호품으로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에 관한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서 형제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를 금지한 것은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의 전통과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의 중직인 안수집사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덕스러운 행동이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 행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가 신앙의 핵심문제는 아니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는 교회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호와 즐거움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주와 금연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존중해온 좋은 전통이므로 이것을 훼손하는 일은 교회에 큰 진통을 야기시킵니다. 교회공동체와 형제의 유익을 위해 이에 관한 자유를 유보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고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한 대법원 위헌판결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면 미국 인구의 30%정도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에 사는 셈이 되었다.

DOMA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미국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선출될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몇 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고 이들은 미국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일어난 또 다른 논쟁은 '의회가 절대다수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다. DOMA연방법은 클린턴정부 때인 1996년 초당적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따라서 그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연방결혼보호법은 당시 상하원의 절대적인 찬성으로(하원: 찬성342 반대67, 상원: 찬성85, 반대14) 통과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그것을 몇 명의 대법판들이 뒤집은 결과가 되었다. DOMA를 합헌으로 주장한 스켈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72%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지난 2004년의 같은 조사에서 나온 59%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59%도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추세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조만간 공화당 소속 대선주자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날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보수 혹은 기독교계 등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측도 여전히 많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5%는 동성애는 죄악으로 보고 있고, 56%는 동성결혼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세력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엑스-게이' 운동을 1976년부터 주도해왔던 엑소터스 인터내셔널(ETI)이 37년 만에 해산을 결정했다.

이번에 물론 9명의 대법판들이 5대4로 나뉘어 결론을 내린 점을 보고 밝은 전망을 생각하는 사람도

뭇 뜻을 뜻하다. 넷째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쇠퇴이다. 미국 에머스트대 바게트 교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인가?

기억할 것은 연방헌법 수정제10조에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에 속한다고 나와 있다. 영어로 Police Power라고 되어있어서 경찰의 권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법에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질서와 처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편리, 안전, 도덕, 건강 및 번영추구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나 이혼법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주들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도 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사표현에 참여를 해야 한다.

무엇이 성경적인 결혼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말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을 설명하고, 증거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가정과 결혼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감당해야 한다. 성경적인 가정의 행복함을 보여야 한다.

법정의 판결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능가할 수 없다. 비록 결혼보호법이 위헌으로 판결됐지만 결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동성결혼의 문제가 평등권의 문제가 된 이상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결혼 주제를 거부할 경우 명백한 차별로 규정된다. 신앙을 잃어가는 사회가 갈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런 소용돌이를 보면서 미국의 조셉 마테라 목사가 쓴 글 "과잉은 해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8가지 특징"이 문득 생각난다. 그는 그동안 은혜에만 치중하던 나머지 성경의 본질을 증거하지 않았던 설교자의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오늘 이런 결과는 강단에서 죄, 심판, 지옥, 심일조, 구약이 사라져 버린 소위 평안을 외치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의 결과는 아닌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 복음만을 증거한 죄의 열매는 아닌가?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On Campus Courses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목회서신

## 다섯 손가락의 기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손가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섯 손가락을 세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아이들이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이 다섯 손가락을 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엄지(Thumb)는 심장에 가장 가깝게 있기에 엄지손가락을 꼽으며 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지혜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 혈육들과 형제 우애를 위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검지(Index or pointing finger)는 무엇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손가락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게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지혜입니다.

니다.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선배, 전문가, 주치의, 주일학교 교사. 또는 성경공부 인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지(Middle finger)는 일반적으로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세면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지혜입니다. 직장의 사장이나 회장이 회사를 지혜롭게 경영하도록,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순한 중들이 되도록,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른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지(Ring finger)는 결혼반지를 끼는 손가락입니다. 약지를 볼 때마

다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엄지는 아버지, 검지는 어머니, 중지는 나, 약지는 배우자, 그리고 소지는 자식을 의미하기에 넷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동반자가 되어준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약지는 손가락 중에 제일 힘이 약한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약지를 세면서 육체적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어떤 이유에서든 근경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 또는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소망이 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지(Pinky)인 새끼 손가락은 제일 작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을 위해 기도하라는 지혜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 배고픔과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리하는 탈북자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한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성도들, 또는 인권 침해를 당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제 3세계의 어린이들,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손가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 주께서 주신 손가락을 세면서 기도하면 어떻게요? 우리의 연약한 손이 기도의 손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2-13).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양키스 마리아노 리베라 은퇴 후 교회설립

미국프로야구(MLB)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마리아노 리베라(44)는 올해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미 교계 신문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베라는 올 연말 뉴욕주 뉴로셀에 '희망의 워터 교회'란 이름의 오순절과 교회를 새로 열 예정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리베라의 부인 클라라가 맡는다. 리베라 부부는 이 교회를 어린이 교육과 저소득층 구제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1995년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MLB에 데뷔한 리베라는 이미 2011년에 MLB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웠다. 당초 지난해 은퇴를 하려다 마음을 바꿔 한 시즌을 더 뛰고 있는 리베라는 올해도 26세이브(통산 634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55로 여전히 녹슬지 않는 기량을 보이고 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도 유명하다. '뉴욕 양키스의 수호신'이란 별명에 대해 리베라는 "나는 신이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으며 나의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대답했다. 스무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는 경기 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인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등판해도 침처럼 흔들리지 않고 위력적인 공을 던진다. 그는 "지금까지 마운드에서 내 힘으로 타자들을 상대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서 "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뿐인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했다.

리베라는 수년 전부터 교회 세우는 일을 시작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 고국인 파나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지에 교회를 설립했다. 2011년엔 폐쇄돼 있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교회를 구입해 300만 달러(34억여원)를 들여 개교 공사를 진행 중이다. 리베라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며, 내가 얻은 것을 공동체에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퇴 결정에 대해 "나에게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다. 난 야구선수로 굉장한 경력을 쌓았지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 베트남, 동성결혼 금지조항 폐기 추진

베트남 법무부가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일간지 전짜(Dan tri)는 27일 법무부가 동성간 결혼금지조항을 폐기하는 혼인가족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성 결혼을 전면 인정하는 수준으로 풀린다.



법무부는 동성 결혼을 정당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지만 차별을 막고 동성간 '동거'에 따른 재산·자녀양육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동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남성 20세, 여성 18세다. 법무부 실무위원회는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앞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네덜란드와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들 국가의 사례를 준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 인터넷 금지 하던 몰몬, 인터넷 전도 전략 발표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 명찰을 달고 가가호호 전도하는 몰몬이 전도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란 본래 명칭보다는 몰몬으로 더 잘 알려진 그들에게 가가호호 전도는 일종의 자존심처럼 여겨졌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에 미국 주류 언론들까지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소위 이단으로 분류되는 몰몬이지만 그 극적 전도 방식만은 기독교계로부터도 부러움을 사



곤 했다.

몰몬 측은 지난 주일 저녁 가가호호 방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전도로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도,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이 주요한 방법이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기에 어떤 면에서 가가호호 전도보다 더 효과적인 면도 있거니와 전도 대상자들이 직접 방문을 꺼려하고 인터넷 상에서 만나길 선호하기 때문이란 이유다.

몰몬은 청소년들이 12살이 되면 사역자로 안수하고 전도를 하게끔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는 2년, 여자는 18개월간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의무화 한다. 가가호호 전도와 병행하게 될 인터넷 전도에도 이 젊은 선교사들이 나서게 된다. 몰몬 관계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며 내년이면 전세계로 확장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몬은 그동안 "개인적인 상황은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주만 섬기라"는 기치 아래 상당히 강력한 선교사 규정을 갖고 있었다. 특히 몰몬 선교사들은 가족 외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전도 정책이 바뀌에 따라 친구나, 선교사 동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허가됐다. 그러나 몰몬이 제공하는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만 작성해 보낼 수 있다.

현재 몰몬에서는 7만 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몰몬은 올해까지 8만5천 명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몰몬의 공격적 전도는 오히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즈음부터 두드러졌다. 몰몬은 그 당시 미국 전역에 행복한 몰몬교인들의 사진을 건 "I'm a Mormon" 대형광고를 세웠다.

#### 영국 한국전 노병들 런던서 고별행진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의 노병들이 런던에서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는 도심 퍼레이드를 벌인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500여명은 오는 11일 오전 런던 버킹엄궁 인근 호스가드 광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1km 구간을 행진하는 추념 행사를 개최한다.



런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행진이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사이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연

령이 80대를 넘어 이번 행사는 사실상의 고별 행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정부와 한국전 참전용사협회(BKVA)는 올해 행사에 참석하는 최연소 참전용사의 연령은 81세로 퍼레이드 인월도 지난 2003년의 2천여명에서 4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참전용사들은 정복차림으로 근위기병대 연병장인 호스가드에 집결해 사열식을 가진 뒤 기병대 및 군악대 등과 함께 정부청사 앞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행진한다.

행진 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왕실의 글로스터 공작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예식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임성남 주영대사가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전용사들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영국은 한국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6천명을 파병해 1천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다. BKVA는 생존 참전용사들이 연로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도심 퍼레이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호주 첫 이슬람교도 각료 '코란 선서'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교도 각료가 탄생했다. 2일 호주 국영 ABC 방송에 따르면 케빈 러드 신임 총리는 전날 발표한 신임 각료 명단에 이슬람교도인 에드 휴직 하원의원을 정부차관(Parliamentary Secretary)으로 발탁했다.



보스니아 이슬람교도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휴직 의원은 집안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그는 특히 1일 쿠웨이트 브라이스 호주 총독 앞에서 한 각료 취임 선서에서 다른 각료들과 달리 성서 대신 코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휴직 의원의 페이스북 등에는 그의 종교적 성향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많은 호주인이 '코란 선서'에 대해 '역겹다' '호주인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책과 같은 책'이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휴직은 "(이슬람교도인 내가)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중들의 반응이 지나치긴 하지만 그들이 '코란 선서'에 대해 보이는 우려를 이해하며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김만형 목사

(친구들교회)

### 세계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제안 (5)

6.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도모하라.

21세기에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을 띠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이해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리스천마저도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바뀌고 그 바뀐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교육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육은 그 목적이 단순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일반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동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곧 지식입니다. 아무리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도 지식이 없이는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가장 먼저 관계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배우는 자들의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지식을 전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받는 지식이 각자에게 감동 곧 충격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 지

식을 배우는 학습경험이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오래 남고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

는가? 교육방법론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강의와 매스미디어가 곧 그것입니다. 설교는 교육방법론 상으로는 강의에 속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다 보면 “그렇지 그거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동의 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 시간에 제공된 지식은 오래 기

억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지도자는 짧은 스피치를 5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들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스미디어, 그것은 감동을 일으키는 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연속극을 보다가 우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동을 위해서 필요와 주제에 따라 비디오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얻고 지식을 갖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만큼 살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감동을 받으며 지식을 갖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

기, 행동은 연극하기, 촌극하기 등입니다. 사람이 이런 방법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 낼 때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게 됩니다.

낯설은 정보와 지식이 이 글 안에 들어 있어서 읽다가 감동도 되고 동감도 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해본다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들이 머릿속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것을 지금 바로 말로 표현하여 대답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뭔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하려면 표현이 안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많은 정보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구슬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만한 지식들이 지금 현재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식의 조각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산만한 지식들을 마치 구슬을 꿰듯이 꿰는 과정이 필요한 것

그러나 한 번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다 그 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때 글을 이렇게 썼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말하고 쓰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발전되고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표현되는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 혹은 가슴속에 정리되어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이해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지식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인해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는 사역에서 대화법을 이용하셨습니다. 대화가 사람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있어서 말하고 쓰는 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가능한 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능한 질문을 많이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유도하므로 그들의 생각을 자극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몰라서, 다시 말한다면 관계된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 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kimmanhy@hanmail.net (다음호에 계속)

### 충격적인 학습경험으로 변화된 행동 이끌어내야 지식습득은 말하고 쓰는 과정 통해야 완전 이해

야 합니까? 거기에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표현적인 방법론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스스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때 행동의 변화에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말과 글, 그리고 행동입니다. 여기서 교육방법론이 나옵니다. 말에서 대화와 토론, 글에서 글쓰기, 그림그리

입니다. 이 일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또 배운 지식에 대한 반응을 표현해보아야 합니다. 말하거나 기록하는 일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마치 구슬을 꿰듯이 정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정보들은 각각 종류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는(sorting)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 칼럼 음악목회 ⑥

#### 팝 음악의 시작과 발전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팝 음악이란 pop=popular 즉 대중의 음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팝 음악의 시작은 백인음악과 흑인음악이 구분되어 발전해왔습니다. 크게 나누어 볼 때 백인음악은 컨트리 앤 웨스턴, 흑인음악은 흑인영가와 가스펠 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Western)의 시작은 청교도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한 때로부터 주로 영국으로부터 온 그들의 특유한 민요적 가락을 바탕으로 신대륙의 상황에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2)흑인영가와 가스펠송-미국에서 같은 시기에 흑인들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소나 말처럼 일하고

사고 팔리우던 그들에게는 비참한 고뇌와 고통을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 버림받은 영혼을 자위하거나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사상이 담긴 특유한 음악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운율에 백인으로부터 받는 찬송가 가락이 믹스된 소위 가스펠송(Gospel Song)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블루스와 재즈의 발생-흑인 영가는 점차 변모되어 이른바 “블루스(Blues)”라는 장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주로 ‘눈물’ ‘술과 여자’ 등이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남부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교육적 소양이 없는 흑인들에 의해 원색적이고 도발하는 듯한 가락의 “재즈(Jazz)”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로큰롤의 출현-갈래를 달리 해 각각 발전을 해오던 백인음악과 흑인음악은 1950년대 초반에 공통의 형식을 갖는 “로큰롤(Rock'n Roll)”이라는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로큰롤의 황제라고 불리우던 엘비스 프레슬리나 영국의 젊은 그룹 비틀즈가 출연하여 새로운 팝 음악의 세계를 장식

하였습니다. 5)변태적 음악의 발전-로큰롤은 시대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대단히 변모하였습니다.

①히피음악-월남전 이후의 미국은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젊은이들의 현실 도피성향이 표면화 되면서 마약 등의 퇴폐적 경향도 나타나 히피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음악에서도 히피음악(Hippie Music) 사이키델릭사운드(Psychedelic Sound) 하드록(Hard Rock) 헤비메탈(Heavy Metal)등의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②디스코 음악-격렬한 춤으로 대표되는 디스코음악도 출현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음악은 여러 장르의 음악이 혼합된 형태로서 발전하였습니다. ③펑크

음악-1980년대부터 디스코 음악은 퇴조하고, 재래의 모든 음악 장르를 파괴할 기세로 나타난 것이 펑크음악(Punk Music)이었습니다. ④뉴웨이브, 뉴록 등의 출현-펑크음악의 퇴조와 함께 등장한 것이 뉴웨이브(New Wave) 뉴록(New Rock) 등의 음악인데 이들 음악은 초기 로큰롤의 부활에 입각해서 나타났습니다.

6)최근의 팝 음악-최근의 팝 음악은 어떠한 주종을 이루는 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모든 장르의 음악들이 혼합되어 제각기 발전하였으며 다만 그 광기가 갈수록 더해간다는 점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6월 13일(목) ~ 20일(목)  
7월 18일(목) ~ 25일(목)  
8월 15일(목) ~ 2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43. 강의 기원

“에덴동산의 강 발견, 전 NASA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콜럼비아호 고대 강 발견”, “에덴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 등 에덴동산에 관련된 기사들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에덴동산이 이라크 지역에 있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에덴동산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에덴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을까? 지금의 강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 1. 에덴의 강

창세기 2장에 에덴동산이 묘사되어 있다. 그 동산 안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이 흐르면서 동산을 적셨고 에덴에서 출발하여 네 개의 강으로 나뉘어 흘렀다고 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2:10). 그 강들은 비손, 기혼, 히타겔, 유브라테인데 이 강 이름들 중에 지금도 강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유브라테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강 비손이 하와라 온 땅을 돌렸다고 했는데 현재 하와라의 위치는 모른다. 둘째 강 기혼은 구스 온 땅을 적었다고 했는데 구스는 아라비아 혹은 이디오피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강이 없다. 셋째 강 히타겔은 앗수르의 묘비들에서 티그리스 강으로 적힌 것이 발견되지만 티그리스 강은 앗수르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 종합하면 이 강의 이름들과 현재 강과는 전혀 연관성을 지을 수 없다. 더욱이 에덴동산에 있던 강들은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아담이 이 기록을 남길 당시에는 이미 강물이 흐르지 않았을 가능

성이 높다. 강물이 ‘흘렀다’고 과거 형으로 표현되어있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의 유브라테 강은 현재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Euphrates) 강일까? 현재의 강들은 모두 다 지구가 멸망된 노아홍수의 격변 이후에 새로 생긴 강들이다. 그러나 노아홍수 이후에 변성하던 사람들은 노아홍수 이전에

건이었다. 성경은 노아홍수가 땅 즉 지구가 멸망된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6:13b).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창9:11).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벧후 3:6). 이런 상황에서 지각은 다 깨어지고 물에 쓸려가 다시 퇴적되어 지층을 형성하였다. 이런 지층이 육지의 약 80%를 덮고 있다. 나머지 20%의 육지도 대부분 홍수 이전에 있던 그 지각이 아니다. 홍수 이전의 산과 강, 육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벧후3:6). 그러므로 빙하지역이 아닌 거의 모든 곳의 현재의 산과 강 모습은 모두 다 노아홍수 때 다시 형성된 것들이다. 당연히 에덴동산도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강들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노아홍수는 땅이 침몰한 사건이었다(창9:11). 땅이 침몰했다는 말은 지구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 버린 상태를 말한다. 노아홍수 때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당시의 물은 지금도 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 현재의 지구를 평평하게 고르려면 지구는 노아홍수 당시와 비슷한

Reinhold 1968 pp.1070-1071)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 비해 너무 넓다”. 또 지형학자들은 예전과 달리, 지형이 한 사건에 의해 만들어지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화 없이 그대로 있다고 믿는다(Hack, J. T. (1975) Dynamic equilibrium and landscape evolution, Boston and London, 87-102). 그러므로 언젠가 많은 양의 물이 짧은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을 따라 지금은 소량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 강이 된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에 워싱턴 주의 St. Helen 산이 화산 폭발했을 때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자연 댐이 만들어졌다. 그 댐에 물이 불어나 출구가 없었던 댐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랜드캐년과 아주 흡사한 캐년이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은 이 캐년을 작은 그랜드캐년(Little Grand Canyon)이라고 부르는데 댐이 터지자 엄청난 양의 물이 한 번 흘러갔고 더 이상 그런 많은 양의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캐년 즉 새로 생긴 강 가운데의 가장 낮은 곳을 통해 아주 적은 양

## 모든 강들은 엄청난 강폭에 비해 강물은 적어(underfit) 세인트헬렌 화산폭발 때 만들어진 캐년도 노아홍수 입증



Little Grand Canyon과 성경의 역사

St. Helen 산에서 만들어진 캐년은 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 관찰은 현재 발견된 강들의 폭이 흐르고 있는 물에 비해 왜 그렇게 넓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강물과 강 폭은 성경의 역사인 전지구적 격변 노아홍수가 사실이었음을 지지하고 있다.

상태로 돌아갈 것인데, 이럴 경우 지구는 평균 2600m의 물로 덮이게 된다.

두 겹께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은 육지가 솟아오르고 지판이 갈라져 바다가 생길 때 그 바다를 향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져 내려갈 것이다. 아직 굳지 않은 퇴적된 땅에 넓은 물길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강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들은 물이 흐르고 있는 양에 비해 강폭이 엄청나게 넓다. 그랜드캐년은 강폭이 18마일이나 되는 곳이 있다. 그러나 강물은 불과 몇 심미터에 불과하다. 이런 적은 양의 물로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렇게 넓은 폭의 강을 만들 수 없다. 어느 지형학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Geomorphology: NY:

의 물만 흐르고 있다. 이 정도의 물로는 그렇게 넓은 강폭을 결코 만들 수 없다.

### 3. 언더 피트(Underfit)

강폭은 넓은데 강물이 부족한 현상을 “underfit”이라 한다. 그러나 지형학자들은 왜 강들이 이렇게 되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많은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부족(underfit)하였다. 역사를 깨달아 알려는 시도는 적합하지 않은(underfit) 방법이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역사의 증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려는 사람들로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강이 왜 그렇게 넓은지, 그것을 만든 격변이 무엇이었는지, 왜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강 모양을 통해서도 전지구적인 격변인 노아홍수와 성경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경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아픔을 통해 열국의 어머니답게 성숙해진사라

사라는 다만 후손을 이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록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을 이룰 자인 것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여 조금씩 침으로 남편에게 하갈을 준다. 그런데 어째서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사라의 제안에 따랐는지? 본인도 조금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함은 어떨지?라고 묻고 안달이니 그 제안이 침이라도 제 몸에서 나는 것이니 그럴듯하여 앞으로 다칠 집안의 불화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좋은 생각이라 맞장구쳐나봅니다.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아무리 종의 아이는 자기 아이나 다름없다하여도 다른 여자에게 좋을까요? 그만큼 자손을 이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아마도 제 남편 여자의 자존심을 접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가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내린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어미 하갈이 종의 신분을 갖고 아이 낳은 위세로 여주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정작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을 줄이야... 25년 만에 약속대로 이삭이 생겼을 때 처음엔 도무지 황당한 꿈같은 약속이 현실이 되니 본색이 나옵니다. 이제는 세상의 부러운 것도 없고 이 설움을 끝까지 참을 이유가 없어진 사라가 당당한 주인마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 없는 집에 비록 정실 아이는 아니라도 14년을 혼자 집안의 조정을 독재하다 뭐하나 쏙 나와 자기를 밀어내니 이스마엘이 재미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에서 사라가 이대로 두어서 아니 되겠다 선을 긋는 바람에 아비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지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결국 저들을 내칩니다. 어린 아들 이삭에 대한 보호본능이기도 했으나 문제가 일어나니 역시 하갈은 종이니 마음대로 내어쫓아 버리고 자기 것을 지켜내는 차가움이 진짜 어머니 보호본능이겠지요. 이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혼란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며... 후일에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는 빌미가 되지만 그때의 문화적 습관으로 후손을 이르려는 안간힘을 쓴 여인의 절박한 심정도, 맹렬히 지켜내는 무지한 모성에도 이해는 갑니다.

애지중지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연질을 주었는지? 비정한 각으로 조용히 떠났는지? 사라는 대한 것은 한 마디도 언급은 없으나 임마가 기절할까? 제물 드리는 일은 남자들이나 아들과 사환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길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말없이 그냥 갔을까? 벌써 커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에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하여 내심 대견했을까? 이삭을 낳고 37년이나 더 살며 좋은 아내,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나름대로 굳건히 지킨 믿음의 여인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라는 통해 모든 허물도 나무라지 않고 긴 인내로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는 출세시켜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후대의 믿음의 분이 되게 하신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126:6). 기쁨의 단을 거둘 내일을 바라보며 사라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리라 조용히 결심해봅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신규주문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

# SALE

잡지, CD 등 일부품목 제외

# 40%

+ TAX

문의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대마도**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고령화 가족**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배를 엮다**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권력의 조건**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에메랄드**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래디컬**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나는 천국을 보았다**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3저 밥상**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자연주의 태교 밥상**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바람은 구두를 신어라**

1억 원 고료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베스트셀러  
최신간 포함  
40%  
SALE**

저희 한국서적에서는  
책자 만드실 분들께  
한국에서 제작하여  
뉴욕으로 배송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미주성서학회 관계자들은 2013서울국제성서학회대회 참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rkWuTek

### 2013 서울국제성서학회대회' 미주대표단 모집 2,013명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 개막행사

2013년 서울국제성서학회대회가 오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박4일 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대회주최는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서울주관은 서울성서화운동본부, 미주주관은 미주(LA)성서화운동본부와 글로벌메시아미션이 하게 된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와 선교사,



평창에서 열린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에서 KCCC 소속 200여 학생들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 미주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전국수련회 참가 200여명 참석... '내 꿈을 펼쳐라(Dare to Dream)' 주제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USA) 소속 200여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전국수련회에 참가했다. '내 꿈을 펼쳐라(Dare to Dream)'라는 주제로 1만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한화 리조트에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수련회를 열었다.

첫날 개막식에서 미주지역(LA, 뉴욕, 시카고, 보스턴, 애틀랜타,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토론토) 200여 대학생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펼쳐보였다.

120여개의 선택 특강과 선교지 소식, 그리고 젊은 이들에게 하나님

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찾도록 돕는 세미나와 상담실을 운영했다. 특별히 텍사스 게이트웨이교회 찬양목사로 섬기는 제이크 목사는 "True Worship"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우리 삶에 큰 축복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전했다.

수련회는 저녁집회, 비전박람회, 선택특강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또 28일부터 2박3일간 미주학생들은 한국대학생들과 함께 여러 도시로 순례전도를 실시했다. (기사제공: KCCC USA)

평신도 대표, 전미주에서 참여하는 미주대표단 선착순 250명, 메시아 여성합창단 미주대표단 200명 등이다.

미주성서화운동 대표회장 박희민 목사는 "한국교회는 한국민족의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었고 근대화와 현대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다. 개신교 신뢰도가 불교 전진교보다 뒤쳐져있다. 한국 국민의 10명중 2명만이 개신교 신뢰하는 이때 서울국제성서학회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깨우고 이민교회를 통해 미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는 운동으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대표는 오는 10월 10일 선발대가 서울로 떠나는 것을 비롯해 1진이 13일(주) 저녁 11시30분, 2진이 14일(월) 오후12시30분, 그리고 3진이 14일(월) 저녁 11시30분에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진행일정은 15일(화) 저녁식사 후 7시 종합리허설 참가를 시작으로 16일(수) 호텔에서 조식, 오전 9시 최종리허설 참가, 10시30분 개막식이야 찬양예배 행사 참가 등 서울성서학회 일정에 맞추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13명의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원이 참가해 16일 오전 10시30분 개막행사에서 90여분간 찬양예배를 시작으로 개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2013명의 합창단이 구성돼 개막행사를 여는 것은 세계 최대 교회에서

최대 인원으로 최초의 여성으로만 구성돼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지휘 노형건 선교사)은 한국에서 1,813명과 미주에서 200명이 더해져서 구성되며, 대회참석 후 18일부터 21일까지 평택, 천안, 서산, 보령, 대전, 전주 혹은 익산, 광주, 여수, 춘천, 인천 지역 교회에 방문하는 성시투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선택사항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합창단은 각 지역에서 공연연습을 펼친다. OC지역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가나나장로교회에서, LA지역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미주평안교회에서, 북미지역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뉴라이프교회에서 진행된다.

대회 참가비는 왕복항공료, 호텔 식사, 대회등록비, 교통비, 팁을 포함해 1550달러이며,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합창단 성시투어에 참여할 경우 300명이 추가돼 1850달러. 참가희망 자는 9월15일까지 신청서, 여권복사본을 미주성서화운동본부(주소: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213)384-5232로 하고, 미주여성합창단원 모집문의는 (323)574-2747(노형건 선교사)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목회자가족수련회 "Servant Like Jesus" 주제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회장 박용덕 목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013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수련회"를 인디언 캠프 컨트리클럽&리조트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목회자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금번 수련회는 "Servant Like Jesus, 예수님 닮은 사역자"라는 주제로 목회자를 위한 목회 세미나와 기도회, 가족여행 "아빠 어디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됐으며, 특히 선 후배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이날 수련회 주강사로 나선 최종인 목사(서울 평화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다"라며 성실육신적 사역자 △집중하는 사역자 △소통하는 사역자 △유용한 사역자 △변함없는 사역자 등의 주제로 총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참여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줬다.

또한 최종인 목사의 부인 김현덕 사모도 사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모의 정체성과 회복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가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날 전도특강을 맡은 남가주 빛나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는 "예성전도를 통한 이민목회"라는 주제로 예성전도의 원리와 전도를 소개하며 목회자 자신이 전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금번 수련회에 참석한 박재은 목사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벌써부터 내년 수련회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KCCD가 주최한 제12회 주택차압방지박람회 임혜빈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KCCD 제12회 주택차압방지박람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가 주최한 제12회 주택차압방지 박람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혜빈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유혜영 KCCD HCA 프로그램수퍼바이저, 레이 브루워 필드 오피스 디렉터(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캐롤 관 수퍼바이저 스페셜 어시스턴트(LA County Assessor's Office), 알렉스 카렌자(US Bank), 아담 홀로프세너

(California Monitor Program), 메리 정(Modern Realty Broker and Director), 랜스 김 스페셜 에이전트(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등이 패널로 나와 주택보호에 대한 각종 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 US뱅크 등이 부스를 차리고 한인 참석자들과 일대일 상담을 벌였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 주택 차압사기 방지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CA, TX, etc.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수정성결교회 제 4회 미션콘서트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미션 콘서트가 7월 7일(주) 오후 6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본 행사를 통해 모금 되는 수익금은 울어를 출발하는 도미니카와 아이티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날 료어일랜드성결교회(담임 김석형 목사)와 밀알선교단이 함께 참여한다.

▲문의: (718)461-9800  
media@nysoojung.org

뉴욕수정성결교회 제 4회 미션콘서트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미션 콘서트가 7월 7일(주) 오후 6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본 행사를 통해 모금 되는 수익금은 울어를 출발하는 도미니카와 아이티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날 료어일랜드성결교회(담임 김석형 목사)와 밀알선교단이 함께 참여한다.

▲문의: (718)461-9800  
media@nysoojung.org

부교역자 청빙

뉴욕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PCUSA교단 소속 웨스트체스터연합교회(담임 이재준 목사)가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청년사역이며 소정의 신학과정, 교회사역의 경험있는 목사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설교CD,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마감은 7월 30일. 이메일 clerksession@kpcow.com

▲문의: (914)623-2749

성령 충만...기도로 준비하자!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5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2013 대뉴욕복음화대회를 1주 앞두고 지난 1일 제 5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의 1부 예배는 박맹준 목사 인도로 기도 윤희주 장로, 설교 최웅렬 목사, 특별통성기도 안승백 목사 김홍석 목사 김성은 목사, 광고 현영갑 목사, 축도 황동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웅렬 목사는 "성령충만을 받자"(행1:6-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일꾼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며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굳게 믿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목사는 1985년 교협총무로 할렐루야대회를 치르면서 당



뉴욕교협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시 뉴욕일원에 한인교회가 80개 밖에 없었을 때 처음으로 쏠든 센터에서 대회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특별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할렐루야 2013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감사 양병희 목사와 제이슨김 목사, 정승환 목사를 위하여, 준비

위원들을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참가를 위하여, 날씨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원을 위하여 제목으로 합심기도 했다.

준비위원장 김수태 목사는 "모든 준비는 잘되고 있는데 단지 후원금이 부족하다"며 "현재 40개교회만 후원금을 보냈는데 액수도 적다"고 말하고 교회회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이날 영어권목회자협의회(EM) 담당 유승례 목사가 영어권 사역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청소년센터와 협력하는 마약방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준비기도위원회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한인마켓 앞에서 할렐루야대회 홍보용 전단지 배부했다.

할렐루야복음화대회는 7월 12일(금)부터 사흘간 퀸즈칼리지 쏠든 센터에서 어린이대회와 동시에 열린다. 금, 토요일은 저녁 7시30분, 주일은 5시30분에 시작되며, 15일(월) 오전 9시부터 사모세미나, 10시 30분부터 목회자세미나가 플러스 금강산 식당에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2003-2013 꿈은 지금도 살아있다!"

알칸사 제자들교회 설립10주년 감사부흥성회

알칸사 리틀락에 소재한 고신소속 제자들교회(담임 전남수 목사)가 지난달 15일 10주년을 맞아 "2003-2013 꿈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한국 강복명성교회 담임 문성원 목사를 초청 감사성회를 가졌다.

담임 전남수 목사는 "10여명의 성도로 신학교 기숙사 거실에서 시작된 교회가 현재까지 성장 부흥해 오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주 전체 한인인구가 2000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진리를 사모하는 결단의 열정 가운데 시작한 개척교회, 둘째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개척 교회, 셋째 미국교회를 빌려서 들어가는 이민교회 개척방식이 아닌, 창립교인들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며 "제자들교회가 '진리가운데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가운데' 분장 없이 말씀 가운데 삶을 결단함으로 자발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이며, 개척 다음날부터 창세기강해와 40일 새벽기도를 통해 출발해 지난 10년 동

안 매년 40일 특새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단 한곳에도 개척후원을 받지 아니하고, 창립멤버들의 헌신으로 감당할 것이 귀한 성장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 세 가지 이유는 계속 개척되는 한인이민교회가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자들교회는 현재 자녀포함 230명의 성도와 14에이커의 2,500sqf의 성전과 남녀 학사관 및 80에이커의 수양관 부지와 묘지까지 확보하고 있다. 또 지난해 4명의 장로를 피택해 당회를 출범시켰으며 내적으로는 예배중심의 교회를 이루면서 외적으로는 2세 교육과 북한선교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역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뉴멕시코 켈럽의 인디언 선교와 멕시코 현지 선교 및 다양한 전도와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타주에까지 잘 알려진 한국학교와 크리스천문화원, 선교태권도 사역 및 지역최초의 주정부 인허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5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5회 정기총회 회장 이미선 목사, 부회장 전희수 목사 연임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7월 1일 할렐루야 뉴욕교회(담임 이광희/이미선 목사)에서 제 5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미션 목사를 회장에 연임시켰다.

단독후보로 회장에 임 후보해 만장일치로 선임된 이미선 회장은 "로고를 만들고 회원의 서류 재정비 등 내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 회장에 다시 출마했는데 성원에 감사한다. 다양한 세미나 개최할 생각이 있다. 더불어 여성목회자 설교집 출판도 계획하고 있다. 더 노력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부회장은 후보등록은 없었으나 전 부회장 전희수 목사가 25명 중 24표의 찬성으로 역시 연임됐다.

정기총회는 1부 개회 예배와 2부 업무 보고와 임원 선출,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사회이은혜 목사, 기도 김정숙 목사, 성경봉독 김신영 목사, 말씀 장경혜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의 순서로 이어 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장경혜 목사는 예배소서 4장 1-6절의 본문을 통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리더로서 여성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과 하나되어 성장해야 할 여성목회자협의회의 미래를 축원했다.

한편 임원선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임원에 임 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인 안수 받은 지 10년, 5년의 목회경험과 5년의 전도사 경력의 현행법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김경자, 나명자, 박도보라, 박현숙, 심화자, 유종신, 장현숙, 정숙자, 전성희, 최건선 목사 등 10명이 가입됐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회원은 현재 48명이며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코네티컷, 조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지역총무를 두고 미주를 아우르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전교인수련회에서 둘째 날 성인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퀸즈장로교회 영어회중 포함 전교인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주최한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허드슨밸리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처음으로 성인과 청년, 중고등부, 유년, 영아부를 비롯해 영어회중인 큐뎀까지 모두 참석하는 전가족 수련회로 마련됐다.

7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교회 담임)로 한 목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행13:21-23)이라는 주제로 저녁과 새벽, 낮 예배에서 총 6회의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동일한 제목으로 개회예배는 사도행전 12장 21-23절을 본문으로 첫날 저녁예배는 사무엘상 23장 1-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새벽에는 시편 51편 1-13절, 낮 예배는 사무엘하 7장 1-13절, 저녁예배는 사무엘하 9장 1-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마지막 날 새벽예배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 초지일관 전했다.

한 목사는 특히 둘째날 낮 예배에서 은혜를 끼친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 전하면서 자신도 후임목사로서 퀸즈장로교회의 담임목사와 원로목사의 아름다운 관계를 치하했다. 한 목사는 "부모는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며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변치 말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며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신앙을 볼 수 있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수련회는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 부모와 자녀(영아부 제외)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특히 유초등부들도 부모와 다른 점자리를 함으로 온전한 각 부별 수련회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키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남가주교협-뉴욕교협 업무협약 체결

## 재해·복음전파 위해 상호협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훈 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5시 한인타운내 만리장성식당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업무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남가주교협과 뉴욕교협의 업무협약식에서 김중훈 뉴욕교회협회장(왼쪽)과 박효우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진유철 남가주교회협장이 집회 차 아르헨티나 방문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해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와 뉴욕교회협 회장 김중훈 목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작년 여름 뉴욕대학을 덮쳐 많은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안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남가주교협이 2만달러를 지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한 사업 △ 상호 인적자원 교류 △인간 정보 나누고 대처 활동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통비치는 7 시간동안 수장이 되기도 했다.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됐다. 또한 한달 이상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 비즈니스를 장기간 쉬는 곳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는데 남가주교회에서 구호헌금을 모아 2만 불을 지원해주셨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남가주와 뉴욕

뉴욕교회 김중훈 회장은 "두 교협이 MOU를 맺게 된 것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 작년 여름 뉴욕은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한인들이

이 함께 손을 잡고 이단문제는 물론 정치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는 등 함께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체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박효우 수석부회장은 "미국 한인교회의 최대 단체인 두 교협이 MOU를 체결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며칠 전에 미국의 결핵보호법과 프포지션 8이 위헌으로 판결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두 교협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 승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뉴욕교회 협회와 사모 50여명은 지난 24일부터 3박4일간 요세미티 국립공원, 세코이아 국립공원 등 창조과학의 탐사여행 차 서부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이날 뉴욕교회협은 남가주교회에 지난해 성금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시전문화선교원 출판 감사예배

시전문화선교원(대표 이민미 시인)은 시전문22인 연합시집 "나야드의 향유" 출판 감사예배가 16일(화) 저녁 7시 용수산 식당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20달러.

▲문의: (818)590-6469, (626)235-9397

### 어린이전도협회 여름캠프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에서 주관하는 2013년 'New Life Bible Camp'가 오는 7월 15일부터(월) 7월 18일(목)까지 3박4일 일정으로 Tujunga에 있는 Rancho Ybarra 크리스천캠프장에서 실시된다. 3학년부부터 7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금년 여름캠프의 주제는 "F9, 성령의 열매 맺는 어린이".

▲문의: (213)382-1544

### 저소득층 버스할인쿠폰 배부

YNOT재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버스 할인쿠폰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YNOT 사무실에서 배부한다. 배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Tap 카드, 메디컬(혹은 저소득 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323)342-2808

# 한인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성료

## 백은실 글로벌공동대표, 미주한인대표 박동건 목사내외 취임식

제9회 한인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알바인에 위치한 하이아트 레전시(Hyatt Regency)에서 '고통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28일 저녁 7시에 열린 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 취임식과 미주한인대표 취임식에서는 12년간 미주한인대표로 시역해온 백은실 대표 내외를 Sam Huizenga와 함께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공동대표로, 그리고 백은실 대표 후임으로 박동건 목사 내외를 제3대 미주한인대표로, 그리고 미주한인 부대표에 조찬주 집사가 취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은실 대표는 미주한인대표 임사를 겸한 글로벌 공동대표 취임사에서 "지난 일들을 감사할 뿐이다. 연약한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부터 컨퍼런스를 맡아왔다. 많은 스태프 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글로벌사역을 맡겨주셨다. 파키스탄 등 아직까지 부흥되지 못한 나라들에 커피브레이크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3대 미주한인대표 박동건 사모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국내선교부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린다. 전임 대표들이 온 마음으로 섬기신 것을 보았다. 커피브레이크사역을 위해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커피브레이크 한인사역팀은 커피브레이크의 글로벌 운동화와 사역 재확장에 건인차역할을 해왔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커피브레이크 사역은 CRC교단 내 세계선교부 소속으로 그리고 미주한인커피브레이크 사역은 CRC교단 내 국내선교부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편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박동건 목사가 주제 강의를 했다. 전체특강은 백은실 대표가 'Let's have CoffeeBreak', 윤원환 목사(피닉스장로교회)가 '시편개관'을, 송병주 목사(산천정지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힘, 목성'을,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를 인도했다.

또한 러브위스퍼(이수정, 이진미)와 박애리 자매가 특송을, 오랜 지한인교회 찬양팀(인도 이재호 목사)이 찬양인도를 맡았다. 한편,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커피브레이크도 함께 열렸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결대학교 감사예배 및 입학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 미주성결대 SEVIS I-20 발행 허가

## 23일, 기념감사예배 및 입학설명회 가져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가 SEVIS I-20 자체발행 기념 감사예배 및 입학설명회를 지난 23일 오후 5시 본교에서 개최했다.

목회자와 장로 등 교단 지도자들과 후원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부 감사예배는 이사장 조종곤 목사의 사회로 시작, 이종길 목사(이사)의 기도,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차광일 목사의 설교가 있는 후, 이기홍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열린 2부 입학설명회에서는 교무처장 윤석길 박사의 진행으로 I-20취득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유학생/편입생들의 입학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외국인 학생들의 신분유지에 관련된 정부의 법적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본교는 지난 6월 5일자로 유학생에게 SEVIS I-20를 발급해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주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글로벌사역자들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본교 관계자는 "미주성결대학교

는 영어강의 확대는 물론 특별장학금을 신설해 우수자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목회자와 상담전문가, 그리고 선교사들의 졸업 후 사역지원 등 진로지도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미주성결대학교)



나성남포교회 VBS가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 'The Race is on!' 나성남포교회 VBS 성료

지난 6월초부터 남가주주일대 교회들에서 여름성경학교(VBS)가 실시한 가운데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운 목사) VBS가 'The Race is on!'이라는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번 VBS는 찬양과 율동,

크래프트, 바이블스터디,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9일에는 교회주자장에 설치된 특별 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17:8-16)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둘째 날은 '갈렐산과 갈보리산'(왕상18:20-4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인생탈진과 회복'(왕상19:1-8) 제목으로 말씀을 전제 참여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현재 워싱턴 블러버드와 웨스트플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11시에 드리고, 젊은이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고 있다. 또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문의: (213)434-1083 (기사제공: 남가주새언약교회)



남가주새언약교회 블레싱 말씀축제 부흥성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 남가주 새언약교회 블레싱 말씀축제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평화교회를 담임하는 최종인 목사를 초청, 3일 동안 부흥성회를

가졌다. '엘리아처럼 승리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 첫 날에는 '한계상황에서 일어나라!'(왕상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매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ce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동성결혼자 권리 확대 쟁점 못할 오판”

## 미대법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교계 우려 성명

한국교계는 동성결혼 커플의 권리 확대에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수 국민의 건전한 정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연론회(회장 김승동 목사)는 27일 논평을 내고 “썬지 못할 오판이라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미국의 퇴폐적 문화에 영향받지 않아야 하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미국 내의 여러 주에서 동성결혼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한 것은 매우 우

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에 대해 동정여론이 일고 있으나 성 소수자의 인권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은 별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쳐온 에스더기도운동도 논평을 내고 “미국 교회의 쇠퇴가 도덕의 몰락을 가져왔고 성경적 결혼관도 무너지게 했다”면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선진국을 만들어 도덕적으로 몰락해 가는 서구와 전 세계에 거룩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계 주요 인사들도 이번 결정의 파장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

재철 목사는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의 건국이념인 청교도 정신을 저버린 사건”이라며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세운 나라인데, 남자가 한 몸을 이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면 더이상 일류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는 “건전한 사회 통념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동성애는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최악인데 정상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나라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교계가 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기독교 변증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기총, '신학대 교수 성명' 반박 성명

## “여론몰이식 모습 개탄...법적 대응할 것”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6일 ‘박용규 교수 외 110인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교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교계에서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 해체에 대한 신학대 교수 110인의 의견’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된 데 대해 한기총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신학 교수들이 이단과 같은 진리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나 대화는 하려하지 않고 과거 이

단감별사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여론몰이를 통해 이단 정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정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학적 바른 입장에서 정리하고 먼저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신학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알게 해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번엔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신학적 고뇌는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삼신론’과 ‘월경임태론’으로 이단 정죄된 최삼경이나 몇몇 그를 추종하는 사이비

주동자들에 의해 한기총을 음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기총 “서명을 한 교수 중에는 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복지학, 음악, 경제학, 영문학 등을 전공한 교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자체가 한기총을 음해하고 한국교회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된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110명의 교수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몇몇 추종자들을 동원해 성명서를 작성, 발표한 사건에 대해 한기총 이대위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할 바 본인으로 인해 110명의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동성애 옹호·조장 도덕교과서 수정하라”

## 미래목회포럼 성명, 출판사, 교육기관 비판

동성애를 옹호하는 고등학교 도덕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와 교육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은 1일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생활과윤리)의 수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본부와 K사와 C사 등 출판사에 도덕교과서 제1차 및 수정을 촉구했다.

포럼은 “문제의 교과서는 동성애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장이 되고 있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 왜곡과 동성애 확산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해당 내용이 삭제 또는 수정되지 않을 경우 기독교

학교에서 문제의 도덕교과서 사용 거부와 동성애조장 금지 서명운동 및 임법정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은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주장, 비도덕적이지 않고 AIDS 등과 관련 없다는 주장, 미성년자에게 게이 카페를 방문해 탐구하라는 식의 과제를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이를 지지하는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불공정한 표본조사와 수치의 교묘한 조작의 결과임이 이미 판명됐다”며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아니며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

동성애자의 질병감염 실태와 불행한 삶도 함께 서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성문화위원회한국민연합(바성연·대표회장 안응운 목사)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출판사 등을 방문,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공문을 전달했다. 바성연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동성애조장 금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일본복음주의동맹, 한기총과 선교협력 파기**

일본복음주의동맹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선교협력을 정식으로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 기독교 언론은 최근에 벌어진 한기총의 이단해체와 이단 관련 움직임에 대해 일본복음주의동맹이 선교 협력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복음주의동맹은 일본 내 약 2

# 신천지 복음방 교육을 해부한다

## (2) 성도들의 구원관 알아엿기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통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을 갈아엎는다는 데 있다. 신천지는 성도들을 미혹해 정통교회의 예배·기도·봉사생활을 중단시키고 가족관계도 파괴하게 만든다.

복음방 2단계에 해당하는 6-10

을 지키기 위해 암호를 쓰듯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비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비유’라는 조잡한 논리를 편다. 이어 신천지는 구약시대, 구약성취시대, 신약성취시대 등 삼시대론을 다시 들먹이며 “신약성취시대

주로 이때부터 비뚤어진 신앙관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신천지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2000년간 들어온 묵은 포도주”라며 정통교회의 신앙관을 철저히 배격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7절을 제시하며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선 비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9과 ‘낮과 밤, 빛과 어두움’에선 “예언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어두움이며 빛으로 나와야 천국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복음방 2단계 교육선 정통교회 신앙관 통째 부정

과는 성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구원론, 신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드는 세뇌과정이다. 이때 신천지가 써먹는 논리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비유풀이’다.

6과는 ‘하나님과 마귀의 존재’이다. 신천지는 모든 세계를 ‘영계’와 ‘육계’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선의 세계’와 사단 마귀의 ‘악의 세계’로 구분한다. 목자도 성령이 함께하는 참 목자, 악령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로 나뉜다. 이때 신천지는 “선과 악의 두 세계는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며 거짓 성경공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점점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유풀이’를 모르는 우리 목사님은 거짓목자라는 이분법적 착각에 빠진다.

7과는 ‘천국비밀’이다. 신천지는 ‘군대에서 적군으로부터 비밀

을 살고 있는 지금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은근히 위협한다.

8과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살고 있는 지금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은근히 위협한다.

8과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살고 있는 지금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은근히 위협한다.

신천지는 미혹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유풀이를 가르쳐 ‘봉함된 말씀만 배우다’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줘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10과에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오늘날 신앙세계가 다르다고 이단시하고 핍박·정죄하는 모습이 만연해 있다”면서 ‘핍박자=정통교회, 피해자=신천지’라는 피해의식을 미리 심어놓는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이원론적 세계관은 모든 사이비 집단이 채택하는 이론으로 신천지도 영과 육, 물질과 정신, 하늘과 땅, 천사와 악마 등 세상의 모든 것이 대립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런 잘못된 세계관은 성도들이 지닌 구원관을 완전히 갈아엎고 목회자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는 데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복음방 교육 2단계**

**6과 하나님과 마귀의 존재**

- 하나님
- 마귀
- 마귀가 하는 일
- 하나님과 사단 역사의 분별법

**7과 천국비밀: 감추어진 것, 비밀 증거, 방계 증거**

- 감추어진 것(비밀)
- 왜 감추셨나?
- 천국비밀에 대한 세가지 시대
- 성취되는 때 아는 지와 모르는 지의 차이

**8과 새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 포도나무
- 포도주 구분

**9과 낮과 밤과 빛과 어두움**

- 빛과 어두움
- 낮과 밤을 통한 시대구분

**10과 세계명 사명**

- 왜 사랑하라 하셨나?
-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 “한국개신교 기원, 1879-1882년”

## 원로사학자 이만열 교수 UPC선교사들 활동 무렵 주장

한국 개신교의 기원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UPC) 선교사들의 한국어 성경 번역과 보급으로 개종이 일어난 1879-188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1885년 4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으로 한국 개신교가 시작됐다는 것이 통설(通說)이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원로사학자 이만열 수필가 명예교수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주최 특별강좌에서 “1885년 이전에 성경 전파로 이미 개종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한국 개신교가 복음 선교사 입국 이후 성립됐다는 통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UPC 소속 존 로스와 존 매킨타이어 선교사는 만주에서 한국어 성경 번역사업을 벌이고 한국인들을 전도했다. 1879년 한국인 4명이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1882년에는 로스 선교사가 ‘예수성교누가복음 전서’(누가복음)와 ‘예수성교요안내복음전서’(요한복음)를 각각 3000부씩 간행했다. 인쇄된 성경은 일본의 스코틀랜드서서공회와 김

철승·서상룡·백홍준 등에 의해 한 반도와 서간도 한인촌에 보급됐다. 성경이 반포된 지역에선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 서간도 한인촌에서 1884년 75명이 세례를 받았고 85년엔 세례 청원자가 600여명에 달했다.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 일을 돕던 서상룡은 1883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성경을 반포한 뒤 중국 선양으로 돌아와 “서울에 70여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으며 서울의 서쪽 도시에 만든 설교당에 18명의 신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교수는 “복음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 보급만으로 개종이 이뤄지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주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경회(查經會·성경공부모임) 운동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등 성경의 활발한 보급이 한국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며 “한국 기독교는 ‘성경기독교(Bible Christianity)’적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출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1회 \$45	10회 \$400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b>★ 1년 구독료</b>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



# 세계종교 문화뉴스

###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OIC(이슬람회의기구), 유럽내 이슬람혐오증에 대항하고자 브뤼셀에 사무소 오픈

지난 6월 26일 조슈아 링겔 박사(미국 이슬람학자, 2 Ministries 창립자 및 대표)가 보낸 OIC의 브뤼셀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에 계속 침묵하면 일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이슬람으로부터 영원히 침묵을 당하고있는 상황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역 안으로 버젓이 들어와 우리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무슬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대항해야 합니다.”

OIC(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는 유럽 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 통과시키고자 EU(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 OIC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슬람포비아(이슬람혐오증)와 같은 용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기 위해 EU의 비선출 관료들을 대상으로 설득, 외교 작업 중에 있다.

OIC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한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최대 회교기구로 회교국가들의 연대강화, 각 분야에서의 교류촉진, 민족독립을 지향하는 회교도들에 대한 투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본부와 전 세계 이슬람국가로부터 모금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OIC는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해 유럽과 미국 내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압력을 가해왔다. 브뤼셀에 마련된 OIC 사무소의 설립은 EU 27개국 멤버 안에서 이슬람혐오증의 모든 형태를 불법화하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5일 OIC의 사무총장 Ekmeleddin Ihsanoglu은 브뤼셀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엔 외교관과 유럽연합 관계자들 그리고 유럽과 이슬람국가로부터 온 고위관료들이 참석했다.

## 침탑이 아닌 벽면에 달린 십자가

지난 주간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인 니멧 오말(Nimet Aumal)에서 교회 헌당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방문했다. 해당 교회는 한국 교회 성도의 귀한 후원금으로 건축하게 됐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하게 여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의 십자가가 지붕이나 침탑이 아닌 하단 벽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 마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건립되는 것을 절에서 극심히 반대했다고 한다. 심지어 교회의 전도사가 이전에 중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절 관계자들이 교회 건립을 못마땅해 했다.

결국 교회 측은 마을에 우물 3개를 파주는 조건으로 교회 건축을 허락(?)받았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됐지만 3만 달러이던 예산이 5만 달러로 불어났다. 바로 건축업자의 횡포 때문이었다. 손바닥만 한 시골마을에 교회 하나를 짓는데 5만 달러라니...

이제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 땅이 바로 캄보디아였다. 때론 받을 준비나, 받아서 누릴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생각해볼게 된다.

##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

지난 29일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활약한 반정부 시위대의 모습(아래 사진).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30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된 가



운데 반대파 지도자들은 벌써 2,200만 명이 무르시의 퇴진 운동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현지에서 사역 중인 이바나바

## 선교사의 기도 요청

1. 시위를 하는 반정부 세력들이 이성을 잃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도록
2. 이슬람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들이 하나로 잘 결집할 수 있도록
3. 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주의자들이 폭력행사를 자제하고, 유럽사태가 최소화되며,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4. 집권 무르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 국가를 획기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소서.
5. 국가가 혼란할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최소화 되도록
6. 국가의 대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게 하시며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소서.

## 수니파와 경찰, 동부 자바주 거주하는 시아파 난민에게 이주명령

150명의 시아파 난민 시위대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카르타로 향했다(아래사진). 수니파 무슬림들로부터 잇따른 공격을 받고 지난해부터 체육관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약 160가구 이상의 시아 무슬림들이 경찰에 의해 떠날 것을 명령 받았다. 지난 해 8월 약 500명의 강경 수니파 폭도들이 흥기로 무장한 채, 시아파 거주지역인 동부 자바주 마두라 섬의 Karang Gayam 마을과 Bluuran을 공격, 수십 채의 가옥을 불태웠다. 이후 그 지역에 살던 시아 무슬림들은 집을 떠나 체육관에서 생활해왔다.



6월 20일 체육관이 폐쇄되면서 이슬람야외 기도처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KontraS의 동부 자바 위원장인 Andy Irfan Juanidi는 난민들이 이동하는 조건으로 지방 당국에 기도처 사용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시아 무슬림들을 향해 경찰들은 “당신들은 이교도”라는 모욕을 일삼고 있다.

수니파 강경주의자들은 시아 무슬림들이 수니 무슬림으로 개종할 경우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믿을만한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지방정부가 시아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고자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자바 주지사인 Soekarwo는 인터뷰를 통해 금번 이전이 시아 난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 강제 전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억4천만 인구의 85% 이상이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니파에 의한 시아파와 아흐마디아파 공격, 기독교 등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방글라데시, 10명의 이슬람 과격분자들 처형

2005년 Gazipur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로 부상당한 JMB 소속원이 치료를 받고 있다(아래사진).

방글라데시 법원의 Mohammad Motahar Hossain 판사는 2005년 자살공격으로 8명의 사망자를 낸 불법 이슬람 무장단체인 JMB의 과격분자 10명에게 교수형을 언도했다.

Gazipur 지역 법원에서 일어난 2005년 11월 공격은 방글라데시의 첫 번째 자살폭탄테러다. 이 테러로 폭발범 뿐 아니라



네 명의 변호사와 세 명의 의뢰인이 사망했다. 2005년 8월17에는 방글라데시의 64개주 가운데 63개주에서 300건 이상의 폭발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온건한 이슬람 국가들이 반군세력과의 갈등으로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우려를 확산시키는 기 위한 것이다. JMB는 방글라데시의 북부지역에서 인민재판을 열어 시아파 법에 위반한 혐의를 가지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기도 했다. 정부는 애초부터 방글라데시 안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론 또한 JMB와 다른 무장 세력인Harkat-ul-Jihad를 금지할 것을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이후 최고 지도자들이 체포됐다.

다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상임이사인

Nasiruddin Allan는 금번 판결이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이슬람주의자들과 그들의 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표현했다. 또한 주(州) 검사인 Rafiqul Islam은 “JMB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정부를 압박해 사회법을 사리아로 바꾸고자 사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톨릭과 루터교의 화해

지난 6월 17일 교황청과 루터교 세계연맹(LWF)은 제네바에서 “갈등에서 일치로”(From Conflict to Communion)라는



마틴루터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두 교회는 교회일치와 세계화의 시대에 종교개혁 기법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죄의 회개와 더불어 지난 50년간 두 교회가 이뤄온 대화의 진전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분열이 진행된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새 교회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교회 안에서 개혁을 바라던 흐름의 일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당시 가톨릭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를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기에 이날을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갈라진 종교개혁일로 기념해왔다.

▲연락처: yschoi037@daum.net

## 선교/단/신

### 단기선교 후원

북부 뉴저지 그리스도의교회(담임 최윤섭 목사)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과테말라 까잘태낭고 단기선교를 앞두고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개척 1년3개월 된 동 교회는 개척 후 매월 3천 달러를 구제 및 선교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선교지는 과테말라와 한국, 짐바브웨. 최윤섭 목사는 “까잘태낭고(살라)는 교회개혁 전 한달 동안 다녀온 곳으로

그곳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선교관 주변에는 도시속 빈민가같이 모든 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관에서 100여명의 어린이 사역을 홀로 담당하시는 김순진 선교사님을 도와 선교관 아이들을 위한 사역과 선교관에서 집중



선교하고 있는 45분 떨어진 치구아 마을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연락처: yschoi037@daum.net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예배: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b>나성성서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EYM예배: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예배: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 EY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b>남가주대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Holywave 영어예배) 주일 5부예배: 오후 1:10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영양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저녁 7:30	<b>동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금요영양예배: 오후 7:45
<b>중앙선교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례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30 영양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6:00(토)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양)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매일) 금요예배: 오후 7:30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	<b>새생명선교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3부예배: 오후 7:00(금) 주일학교: 오전 6:00(월-토) 영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공요예배: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양)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1:3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토) 은혜세가지도회: 365일 24시간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주일 6부예배: 오전 6: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b>요셉선교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1:3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토) 은혜세가지도회: 365일 24시간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주일 6부예배: 오전 6: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b>요셉선교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1:3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8:00(토) 은혜세가지도회: 365일 24시간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주일 6부예배: 오전 6: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b>요셉선교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헝가리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지요? 기도와 사랑, 물질로 선교 후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말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마24:45).  
드디어! 오늘 (2013/6/24)부

터 선교센터 대지 위에 조그만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은, 기존의 창고 헐기, 건축 쓰레기 처리, 건축 감독과 상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Amazing Grace!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여! 숙연해지고, 겸허해집니다.  
부지는 16mx 6m=96m<sup>2</sup>입니다. 채플로 쓰던 기존 건물(31.66 m<sup>2</sup>)을 끼고,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1층(95.06m<sup>2</sup>), 테라스(21.60m<sup>2</sup>), 2층(90.45 m<sup>2</sup>) 합 246.90m<sup>2</sup>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

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58:12).  
기도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월요일 동부역 급식 사역을 다녀와서, 김흥근&서명희 선교사 드림.  
홈페이지: http://hungary.cafe24.com

투고 시

데스벨리의 바위산

예강 지인식(목사, 시인)

캘리포니아 사막 서쪽 끝 베이커타운 100 마일 안쪽, 죽음의 계곡 바위산 사면 받지 못한 장기수인가?

헤진 적갈색 수의입고 열기 후끈한 분지에 갈혀 수형의 무게를 참아내고 있다

화상 입은 얼굴 저마다 같은 모습 하나 없고 머리 털조차 타버린 민둥산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참지 못한 험기에 바위, 움푹 속패이고

체념의 세월 제 살점 물어뜯은 이빨 자국 상처만 남았다

뜨거운 몸 호수에 담그고 싶어 달빛에 호소하였다는 질곡의 사연

못들은 체 도망치는 이방 나그네 뒤통수에 불 바람 바짝 따라 붙는다

케냐

2013년 동부 아프리카 케냐의 6월의



선교소식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보내 주시는 교회와 선교회원 여러분들께 문안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종합적으로 드렸던 선교소식을 이번부터는 사역별 상황별로 소식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요야야 부족을 위한 식량구호 사역

선교 편지

과 단기 선교사의 입국

지난 4월 26일 그동안 도로 사정으로 인해 미루어왔던 문요야야 부족 물란조 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식량구호사역을 은혜중 마치고 왔습니다. 약 400가구에 비상식량 키트(옥수수, 밀가루, 소금, 설탕, 티, 기름)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에 구호식품을 받은 저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 그동안 단기선교

사로 헌신하고 준비하였던 양경선, 이지선 부부가 케냐에 입국하여 가리사 물란조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지선 선교사는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양경선 선교사는 체육 교사로 활동하며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의 김천대학 단기 선교팀 28명이 케냐에 들어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과 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선교사 드림  
이메일: missionkenya@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1)

이번호부터 성경단어를 중심으로 '십자말'(Cross Word)을 게재한다. 십자말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특히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주로 사용함으로 독자들이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십자말 작성은 본지교문 김기호 장로(사진)가 맡았다. [편집자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 푸는 열쇠>

1.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생활을 기록한 책.
4. 이라리라함(수7:20).

6. 상속받는 사람의 법률상의 호칭(창15:2).
8. 성벽 또는 성문을 부수기 위해 사용된 기둥같은 큰 나무(겔4:2).
10. 구약시대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들의 기록, 구약 7번째 책.
12. 줄여 작게 함(미6:10).
14. 허리가 아픈 병(사21:3).
15. 아브라함의 여중, 이스마엘의 생모(창16:15).
16.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암4:5).
17. 시신을 나르는 제구(삼하3:31).
18. 암몬족속에 속한 람바사람 나하스의 아들(삼하17:27).
19. 생기어 나는 물건(민35:3).
21.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다른 데 쓸 수 없다(막7:11).
24. 파수꾼이 아침을 OOO보다 내 영혼이...(시130:6).
26.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창46:12).
28.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기념으로 사무엘이 세운 비석(삼상7:12).
29. 헤롯의 아들. 학정이 심해 파직됨(마2:22).

<세로 푸는 열쇠>

2. 매우 슬퍼하는 소리(욥30:31).
3. 날씨가 대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의 현상(눅12:56).
4. 남자 말고.....(창1:27).
5. 요담왕의 모친(대하27:1).
7. 재물을 대고 죄를 면하는 일(출29:36).
8.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OOOO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행18:13).
9. 움츠리고 물러섬(시44:18).
10. 부부 아닌 남녀가 물레 정을 통함(겔16:32).
11. 기브온과 동맹한 도시 중의 하나요 유다지파에게 준 땅(삿18:12).
13. 여름철에 갑자기 퍼붓는 큰 비(시72:6).
14. 제물을 흔들어 제사 지내는 제물(출29:27).
18. 음식을 놓고 먹는 상(마14:8).
20. 뱀 아이를 낳는 시기(삼상4:19).
22. 야곱의 장자며 레아의 소생(창29:32).
23. 칠일(삼상11:3).
25.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이곳에 이르러 악담으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불로써 멸하신 후 이 이름을 주었다(민11:3).
26. 르우벤의 영지로서 레위 자손에게 양여한 성읍(대상7:37).
27. 히브리 곡식 되는 단위(왕하7: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십자말 정답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적응,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4 사모의 비전 가꾸기(3)

하나님은 사모들에게 비전을 주신 후에는 그 비전을 이루 시키 위해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광야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굴복과 목회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나온 지식, 내게 익숙해있는 습관, 나의 몸에 배어있는 언어, 사고방식과 고정관념내지는 성격과 기질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았다 해도 그가 이루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토록 잘 준비되어있는 남편을 이 땅위에서는 그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손해를 많이 보실 것이라는 생각이 좀처럼

이에 생긴. 이것 갖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던 나의 생각들을 모두 부숴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보다는 잘할 줄 알고 있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전적인 순종과 굴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엄청난 명령앞에서도 자신을 굴복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슨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혹독한 광야학교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광야생활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0년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짜들었던 노예생활 습관을 모두 벗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호된 광야생활을 그렇게 긴 시간을 걸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모들의 광야학교에서는 또 다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아내이면서도 성도들의 어머니역할입니다. 설교하는 남편의 내용이 사모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성도들 때문에 사모의 비전은 때로 목사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모들도 목회를 시작하는 남편과 함께 부

## “광야학교에 입학...경험적 지식, 습관, 언어, 사고방식, 고정관념, 성격, 기질 등 모두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외우기는 쉽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는 굴복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굴복!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여 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모두 없애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광야학교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들어가 생각해 보면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굴복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눈만 뜨면 성경, 기도, 찬송으로 몸에 익숙했던 생활 갖고는 굴복의 십자가 가는 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된다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2시간씩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개척교회로 하면서 교회청소나 갖은 일은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충실히 하는 자였기에 스스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실 거야’라는 생각에 항상 잠겨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한꺼번에 떠나 버린 현실 앞에 섰을 때의 당혹함은, 그리고 그 처절하고 불안에 떨고 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은 얼마나 엉터러웠나를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

픈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성도들 때문에 그 꿈은 물거품이 되기도 하며 따라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시집을 때 이런 비전을 갖고 왔는데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네요” 하며 허탈함에 빠지는 사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모들의 비전을 모두 부숴뜨릴 때도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된 사모사역의 꿈은 미국에 도착하자 남편의 죽음으로 모두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그늘아래에서 나의 모든 꿈을 이루실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진 이후로는 꿈을 접고 또 접었던 것입니다. 남편 없는 외로움도 견디기 힘들데다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확신했던 꿈마저 포기하는 것은 저의 모든 생애가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비전 안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인 나의 야망과 영웅심 내지는 허영 따위들을 모두 씻어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은 모두 깨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여호와 이래의 것들로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을 품소 알게 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단어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보니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 땅을 뒤에 두고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의 절망감,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영국 땅을 던져 하시고 그곳에서 사모교실을 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신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잔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18-21).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그리스도인의 판단(시81:1-8)찬485장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는 본문은(1-2,8) 무엇이 바른 분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악인의 판단은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에 모두 악하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화와 영적 지도자들의 모임에는 더욱 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주의 광명 안에서만 나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일

에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같은 소자들을 다룰 때 억울하지 않도록 바로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종판단을 주께 위탁해야 합니다. 악인의 무지무각하고 애매모호한 태도에 반해 성도는 하나님이 일어나 판단해달라고 겸손히 위탁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 화 능력의 주를 찬양하라(시81:9-16)찬93장

본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가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하십니다. 8-10절에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사랑을 회상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제일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향락의 우상에 미쳐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항상 강조되어야 합니다. 둘째, 네 입을 넓게 열라하셨습니다. 8-1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나안의 쟁과 꿀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고(1-4)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정중하는 백성에게 밭의 아름다운 것과 반석의 꿀로 먹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 수 지존자 하나님(시83:1-17)찬10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지존자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18). 어떤 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원수의 극심한 공격이 있을 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수의 회화와 간계,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연합(2-5)이 꾀해질 때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자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만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존자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

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역사 즉, 미디안과 시스라(9), 오렐과 스엘(사7:25), 세바와 살몬나의 멸망(사8:5-21) 같은 승리를 구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 모든 일이 판단되기를 구했습니다(13-15). 아무리 매일의 영적전쟁에 원수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지존자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주인되심을 드러나도록 겸손히 간구합니다.

### 목 복된 자(시84:1-12)찬28장

성전을 찾은 순례행렬의 대표자가 부른 노래로 보는 본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성전과 관련됐음을 발견합니다. 첫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습니다(1-4). 주의 집, 주의 궁정, 주의 제단으로 명시된 성전은 생존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며, 믿는 자의 왕되신 분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열심히(3)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둘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5-8).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과 통하는 교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고달픈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샘물같은 은혜를 받으며 큰 능력을 받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9-12). 화와 방패로 비유된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복 받은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 금 부흥의 조건(시84:4-7)찬208장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며 부흥을 구하는 시인에게서 우리는 부흥의 필수조건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주의 은혜와 복과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죄인의 회심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한 죄인의 회개는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부흥주의

자라고 평가받는 찰스 피니가 죄인의 적극적인 회심에 초점을 맞춘 일은 수동적 태도로 치우친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 죄를 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10절에 보인대로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를 따른 죄 고백과 헌신의 모습이 일어나야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에 보인 여호와 군대처럼 부흥을 맞보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 토 구원의 영광을 보라(시85:1-13)찬492장

과거의 구원을 기억함은 현재의 구원을 바라보는 영적육구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 구원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구원하십니까(9).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과거에 야곱의 포로를 돌이키신 하나님은 현재에 주의 인자로 구원을 받

게 하시며 미래에도 구원의 큰 영광이 땅에 있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롬5:8). 셋째, 어떤 구원을 이루십니까? 풍성한 구원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총만하고 의와 화평이 임박하는 풍성한 구원(요10:10)을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농축돼있는 풍성한 구원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152-577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152-577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문동 870-15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2)2-2646-3181~5, Fax. (82)2-2646-4834 500-170 경곡광역시 북구 금곡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교회</b>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곡동 교신시 입산동구 용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복합)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3 (158-053)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복음2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령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1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FAX.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창동 137 번지	<b>시온수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인왕1동 6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b>안양 제1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심리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신안구 용암동 415 www.yang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59-12	<b>청주주요신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b>뱅크비블리메이교회</b>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성경 강도: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금요기도회: 새벽 5:00, 7:00 금요일 오후 7:30 Tel. (055)584-5780, Fax. (055)584-5717 16041 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e,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4부예배: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고등학생: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hanmail.net Cervantes N. 1001, Asuncion-PARAGUAY





# 은혜의 땅 예루살렘

#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9)

-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목미술선교회 회장)



## E. 예루살렘 지역

D-5. 읍바

가나 혼인잔치집은 시간상 들리질 못하고 읍바로 곧장 행했는데 읍바의 뜻이 '아름답다'인만큼 실제로도 아름다웠다. 읍바 항구 도시는 히브리어로 야포(Jafo), 아랍어로는 야파(Jaffa)이며 통칭 Jaffa로 쓴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약 55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래전 이집트의 투트모스3세부터 유명해진 항구를 Old-Jaffa로, 근대에 들어서면서 1950년부터는 합병된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된 텔아비브-읍바(Tel Aviv-Jaffa)라고 부른다. 텔은 언급한대로 역사적인 인공 언덕이요 아비브는 봄을 말

와 같은 고층 건물들이 흰 숲을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하얀색에 가까운 천연 혹은 인조 라임스톤이래야 아파트나 콘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이스라엘을 연상케 하는 오프 화이트, 통곡의 벽 색깔이다.

가끔 초현대식 건물이 유리창이나 스테인레스 스타일을 돌보다 많이 넣어, 바우하우스식이나 국제적 양식과 감각을 넣어 디자인한 세계의 마천루들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세련된 고층건물도 많았지만 대개는 라임스톤으로만 된 건물들이었다.

1998년도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는 텔아비브-읍바. 후세들과 세계

오른 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지중해가 저녁 빛을 받아 반사하느라 하얗게 반짝이고 있어 은빛 바다 그 자체였다. 곧 저녁 해로 물 들면 장관을 이룬다고 하니 관광객들이나 연인들이 모여드는 시간이 될 성 싶다. 매일 각종 문화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곳, 우리들은 각국 대사관들의 큰 깃발이 드리운 거리를 질러가면서 나라 이름을 알아맞추느라 고개를 빼고 스위스, 터키, 영국, 인도, 프랑스, 미국...이라고 외쳤다.

드디어 읍바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돌로 된 포도를 따라가다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며 죽은 다비다(도르가)를 살린(행9:40) 생명의 기적이나,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에게 초대돼 이방인 선교의 기수가 된(행10장)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베드로교회를 보았다. 그리고 그 교회 정문 앞 언덕 위에 있는 아브라함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읍바의 가장 높은 부분에 공원이 있어서 가족들과 연인들이 지중해를 바라보며 낭만을 만끽하고 있는 뒷모습을 위에서 쉽게 내려다 볼 수 있었는데

필자는 1998년 순례 때 보고 반한 이스라엘 슈거 로커스트 나무의 잎을 따 만든 책갈피에 넣었다. 공원 가장 높은 곳에는 7자를 위로 열어 높은 것같이 가운데는 비어있는 화강암조각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천사의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여호수아가 여러고성을 돌려 정복하는 것을 넣어 새긴 것이다.

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도시 전체를 같은 색으로 점차 통일시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중 일부는 '화이트 시티'(White City)라는 명칭으로 200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에 1930년부터 1950년까지 지어진 양식을 변경하지 못하고 계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998년 순례 때 보고 반한 이스라엘 슈거 로커스트 나무의 잎을 따 만든 책갈피에 넣었다. 공원 가장 높은 곳에는 7자를 위로 열어 높은 것같이 가운데는 비어있는 화강암조각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천사의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여호수아가 여러고성을 돌려 정복하는 것을 넣어 새긴 것이다.

읍바 한쪽은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거주 지역으로 주일이라 문을 닫은 것이 보였다. 이날도 뻣뻣한 일정으로 예루살렘 숙소 라마다 호텔로 오는 동안 캄캄해져서 산 위에 빼곡히 있는 집들 때문에 산 위쪽에서만 불들이 환하게 보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하셨던 말씀이 15절에서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둔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생각났다. "주님, 산위의 동네에 켜진 불처럼 모두가 알 수 밖에 없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겠습니다..."

## E. 예루살렘 지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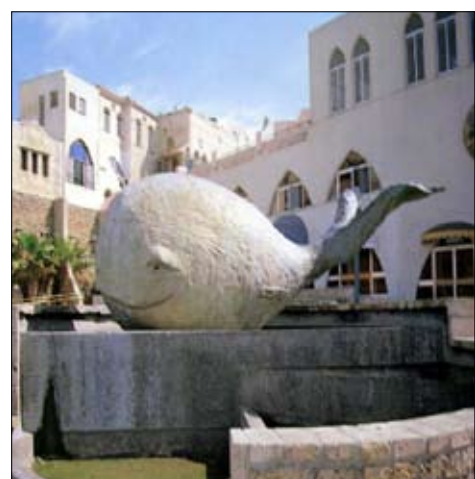
주일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은 이스라엘의 리멤버런스데이이다. 우리의 현충일과 비슷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다 혹은 싸우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며 기리는 뜻과 학살당한 유대조상을 잊지 말자는 뜻이 담겨있어 이날은 박물관과 6백만 학살추모기념관인 야드 바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갑자기 차들이 멈추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섰다. 별다른 사이렌도 없었는데, 관례로 정해진 시간에 추모를 하는 것이다. 우리 버스도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서있었다.

햇젤산이 국립묘지 역할을 하는데 꼭대기부터 수상 묘, 국가유공자 묘 순으로 묻는다고 한다. 예루살렘 지역을 이틀에 나누어 (가)와 (나)로 보는데 6백만학살 추모회관인 야드 베셈, 엔케렘의 마리아 방문교회와 세례요한 탄생교회, 다윗성, 기드론 골짜기,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엔노켈, 힌놈의 골짜기(게헨나), 예루살렘 성의 통곡의 벽,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교회 등을 보게 될 것이며 베드로의 예배는 베드로의 예수님부인교회에서 합동으로 드렸다.

## E-1. 엔 케렘(En Kerem, Ein Karem)

예루살렘 지역의 하나인 이곳은 구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8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4개의 산기슭 가운데 위치하여 엔 케렘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살았던 소래 골짜기의 상류인 산 위쪽의 숲속에는 화려한 황금 돔을 가진 그리스정교회가 보여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마리아방문교회와 세례요한

의 탄생교회도 불과 몇 백미터 사이로 있다.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나 갤러리가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격



읍바조각돌고래

조 있는 언덕이다. 이번엔 가지 못했지만 그 밑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가다가 샘물을 마셨다는 마리아 우물교회가 있다. 또한 이곳에는 엔 케렘 농업학교와 세계적인 의로기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하닷사(Hardassah) 엔케렘이라는 히브리



마리아방문교회

대학의 의과대학이 있고 이 대학 병원 이름은 예스더다. 약대, 간호대도 함께 있는데 여성유대인단체인 하닷사어소시에이션에서 기금을 모아 뉴욕에도 세웠다고 한다.

## E-2. 마리아 방문교회(Church of the Visitation)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이미 자신보다 6개월 전에 아이(세례요한)를 잉태한 친척인 엘리사벳이 있는 이 엔케렘에 온 것이다.

우리는 날씨가 좋아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 언덕을 올랐다. 고아원이 있는 시온수녀원을 지나 중턱에 올라와 마치 마리아가 되어 이룩고 엘리사벳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마리아방문교회 안으로 성

큼 들어섰다. 십자군 시대에도 이 장소에 교회가 있어왔다.

성경(눅1:39-55)에서는 '유대 한 동네(시골)로 되어 있는 이곳, 마리아가 찬미한 내용을 여러 나라 말로 타일에 새겨 벽에 일정한 크기로 나열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것도 있다.

이곳 교회 높은 외벽에는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천사의 가이드를 받아 먼 길을 오고 있는 모자이크 화가 있고 마당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현대식으로 표현된 마른 형태의 브론즈 동상이 있고(그 뒷 벽에 마리아 찬미가가 나열되었다) 교회 안 정면

위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중세 풍의 옷을 입고 상봉하는 장면의 그림도 있다. 누가 마리아고 엘리사벳인지 궁금하다면 긴 망토를 머리부터 쓰고 있는 오른쪽의 사람이 마리아다. 우리나라 장옷처럼 마리아도 먼 여행길을 할 때 외투를 입었기 때문이다. 중세 아이콘

에도 약속처럼 마리아는 그러한 복자이다. 엘리사벳의 배가 더 많이 부른 것도 표시가 될 수 있다. 지하에는 십자군 시대부터 있는 유적들이 즐비했고 열지은 진흥의 와일드 제라늄 꽃이 오프 화이트 색의 담 위에 늘어뜨려져 아름다운 모습을 더했다. 그 밑에서 순례객들은 사진들을 찍어왔다.

## E-3. 세례요한 탄생교회

마리아방문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가라의 집터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세례요한의 탄생 동굴이 있다는 교회가 있다. 4-5세기 비잔틴시대부터 있던 교회 터에 십자군 시대에 이슬람에 의해 파괴돼 폐허가 됐지만 천주교회에서 복원했다.

현재 성당은 1714년 작은형제회에서 지어서 1885년에 보수됐다고 한다. 지하에는 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 제단이 있다. 그 옆 좁은 벽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세례요한의 생애와 이 교회의 역사가 쓰여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단 앞 아치에 쓰여 있는 라틴어 비문은 선명했다. "찬송하리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눅1:68).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하니 이른바 '봄의 언덕'이다. 1909년 구 읍바의 유대인 60가 족이 황량한 모래언덕을 사서 개간해 지금은 세계 경제, 상업, 교육, 예술,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으니 읍바는 텔아비브 건설의 언덕이 돼준 셈이다. 텔아비브에서 남쪽으로 해안 길을 따라 텔아비브 남쪽 끝자락인 읍바로 달리면 왼쪽으로는 신도시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세일가격 \$150.00+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남하스  
2권:다~못  
3권: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데겔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